

현안과제연구

Issue Report

2016. 12. 05

CONTENTS

< 요약 >

주요 검토의견

- 0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 02. 지역현황 및 여건분석
- 03. 지역연계구조 분석
- 04. 지역발전 여건분석



충남 남동권 발전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

이상준 책임연구원(sky99@cni.re.kr)
 유예나 연구원(yooyena@cni.re.kr)
 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본 연구는 2016년 이후 추진되고 있는 『충남 남동권발전방안 검토』와 관련하여, 충남도의 남동권 발전에 대한 방향 설정과 관련한 근거자료로서, 충남 남동권의 현황 및 여건변화를 분석하고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요약

-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남동권발전방안 검토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임
- 충남 남동권발전방안 설정을 위해서는 남동권에 대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지역현황 및 여건분석, 지역연계구조 분석, 지역발전 여건분석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관련자료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관련 항목에 대한 현황과 여건 변화 등에 대한 내용적 기술과 분석을 실시하였음
- 이를 통해, 충남 남동권의 발전방안에 대해, 역사문화자원 활용 테마화명소화 전략 추진, 환경친화적 도시근교형 전원 주거지 개발 등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음

1) 상위계획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 지역특화 및 광역적 협력 강화
 - 농산어촌의 녹색성장 기반 구축 및 역사문화관광자원의 연계 활용
-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주거환경 조성
 - 저출산고령화 대응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심재생 활성화
- 녹색교통·국토정보 통합 네트워크 구축
 - 도로망 확충 및 물류유통거점 조성

(2)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2012~2021)

- 유교문화권 역사자원 발굴 및 관광명소 조성
 - 유교문화권(논산·금산)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발굴개발사업 전개
- 전통산업의 관광자원화 및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강화
 - 금산인삼, 강경젓갈 등 관광자원화 및 맞춤형 홍보·마케팅기법 도입
- 지역자원 관광자원화로 녹색산업관광 육성
 - 금산 인삼재배단지, 자연치유마을 등 청정 자연환경 활용 신관광산업 육성

(3) 내륙침단산업권발전종합계획(2011~2020)

- 지역향토산업 관련 고부가가치 전략 도모
 - 금산 인삼 등 한약재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
 - 의료관광 체계 고도화 및 연계 관광상품 개발, 특화
- 역사문화중심의 내륙관광 회랑 조성
 - 기호학파 거점이었던 논산 등 주요 문화유산 정비사업 추진 및 연계루트 개발
 - 원도심 역사문화자원 활용 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
 - 백제문화단지 등 역사문화자원 정비

(4)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

■ 논산시

- 활력있는 경제 도시
 - 기존산업농공단지 활성화 및 신규 공단 조성과 종합 유통단지 조성으로 기업유치
 - 에스민 브랜드를 활용한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 소득 증대 도모
 - 전통시장, 강경 젓갈시장 활성화 등 도심 상권강화 시책 추진
- 역사가 살아 숨쉬는 문화관광 체험도시
 - 돈암서원 등 유교 문화권, 대백제문화권 문화유적 정비 및 개발
 - 탐정호, 양촌 휴양림, 대둔산 등 자연 관광 인프라를 이용한 관광 활성화
 - 국방문화 및 딸기 등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체험사업의 메카 재탄생

● 행복한 교육복지 도시

- 다양한 교육환경 여건 제공으로 수준 높은 교육 인프라 구축
-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보건복지 수혜수준 제고
- 도심 내 공원 및 체육 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

● 누구나 살고 싶은 친절하고 쾌적한 도시

- 체계적 재난관리로 안전하고 편안한 살기 좋은 도시
- 도시·농촌 주거환경개선, 도시가스 공급 확대로 쾌적한 도시
-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친절교육으로 다시 찾고 싶은 도시 조성

● 성과 중심의 자치 역량 강화 도시

- 시정업무의 성과 지표 개발 및 시스템 구축
- 행정역량 강화 제고와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책임 행정 구현

■ 계룡시

● 도시공간구조 및 도시성장축 정비

- 연속적 녹지축 형성 및 관리, 대실도시개발 및 정주생활권과 역세권개발을 포함 도시 개발축 설정, 동서 간선도로 건설

● 생활권 설정 및 거점 특화개발

- 금암지구 중심생활권 및 생활권별 특화추진, 광역교통체계 구축 및 금암지구 중심의 방사환상형 교통축 구축

●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지연(地緣)산업 인프라 구축

-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확대, 고부가가치의 2,3차 가공 농산품생산 확대 등 우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신도안)가치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 쾌적한 녹색자연환경의 보전과 녹지축 형성으로 생태도시 조성
 - 푸른숲(녹지벨트), 깨끗한 공기(대기벨트), 맑은 물(물벨트)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환경도시 건설, 두계천 생태네트워크 구축, 자연체험 교육시설 조성
-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교육문화도시 구현
 - 청정 도시경관 관광자원화, 민군융합 및 체험형 군문화 특화, 평생학습도시 수준의 교육환경 제공 등 수준높은 교육인프라 구축, 유동리 복합문화체육단지 조성
- 특화된 국방도시 조성
 - 민군융합타운(軍복지센터), 제대군인촌 조성, 계룡제1산업단지 및 제1농공단지를 연계한 국방산업단지 육성, 차별화된 ‘국방특구’ 조성
 - 군문화체험 밀리터리 공원 조성, 계룡대와 연계 통일탑, 숲용추, 암용추, 천황봉을 잇는 안보관광 자원 개발

■ 금산군

- 인삼·약초 등의 건강·웰빙산업 육성으로 지역산업구조의 다각화
 - 인삼·약초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향후 건강·요양산업과 웰빙산업 등의 연관산업의 집적·발전을 유도
 - 인삼과 약초부문의 가공산업 활성화 및 건강투어리즘에 기반한 산업구조의 다각화 도모
- 친환경 농산물 및 지역향토산업 육성을 통한 내발적 농업패러다임 구축
 - 친환경 고부가가치 농업 및 특화작목 확대 육성을 통한 소득 증대 도모
 - 금산 들깨잎 등 시설채소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농특산물의 고급화 및 고브랜딩화, 품질안정과 포장의 과학화·고급화를 통해 안정적인 근교농업 육성

- 건강관련식품산업을 특화시키고 개발하며 기능성 전통식품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식품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벤처농업 및 생명농업을 육성

● 경관·생태·환경자원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추진

- 난개발, 환경훼손, 자원의 낭비 등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어메니티 자원의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자산인 경관, 생태, 환경자원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증진
- 계획적인 도시민 유치와 농촌마을공간의 정비를 통해 아름다운 농촌공간구조의 창출 및 난개발 문제 해결

●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품격 높은 문화·관광 개발

- 품격 높은 문화기반 시설 확충 및 주민의 문화수준의 향상
- 문화·역사자원, 휴양림과 금강 등의 자연경관자원 연계 및 다양한 수요층을 겨냥한 관광산업 활성화

2) 관련계획

(1) 2020년 논산시 도시기본계획변경(2011~2020)

● 경제활동인구 증대를 통한 도시활력 재창조

- 논산도심을 ABD(Amenity Business district)로 전환
- 연산생활권에 신 성장거점(교육, 관광, 문화) 조성
- 근대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거점지역으로 조성
- KTX공주역 및 유교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기반 마련

-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으로 산업구조 개편
 - 연무, 성동생활권에 첨단산업단지 조성
- Amenity 활용 극대화로 삶의 질 향상
 - 시민 선호형 주택공급
 - 시민 선호형 기반시설 확충
 - 역사문화수자원을 연계한 문화 인프라 확충
- 기후변화 대응전략 다변화로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
 - 도시재생 및 압축도시 구현으로 무질서한 도시 확산 방지
 - 친환경 도시기반 조성(Green-Structure)
 - 시민들의 능동적 참여 유도(Green-Citizen)
 - 기후변화 대비 재해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도시 조성

(2) 2020년 계룡시 도시기본계획(2010~2020)

- 생태전원도시로의 지향
 - 자연, 환경, 사람이 친화된 쾌적한 도시
 -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재활용을 통한 오염발생 없는 도시
 - 환경보전 기능을 갖는 각종 도시시스템과 생활양식을 가지는 도시
- 국방·과학도시로의 지향
 - 국내외 국방벤처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술집약형 산업도시
 - 활력 있는 산업과 경제활동, 지역산업 혁신을 통한 경제도시

- 국방(과학) 문화를 꽃 피울 수 있는 민군회합도시

● 문화관광도시로의 지향

- 문화 예술의 접촉기회 확대와 저변확대를 추진하는 문화예술도시
- 다양한 축제와 행사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삶의 활력을 얻는 축제의 도시
- 수준 높은 교육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따뜻하고 풍요로운 도시

(3) 2020년 금산군 기본계획(2010~2020)

● 대전광역권의 대표적‘휴양관광도시’

- 수변, 산림 등 양호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순환형·체류형 휴양관광벨트 구축
- 웰빙산업과 연계한 휴양형 전원단지 개발
-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 등 체험형 관광산업의 적극적 육성을 통한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웰빙산업으로 특화된‘활력도시’

- 대학·연구소의 기능강화 및 유치를 통한 인삼·약초 등 한방관련 산업클러스터 구축
- 확대된 광역교통 접근성을 기반으로 물류·유통 중심지 조성
- 산업단지의 계획적·체계적 구성에 의한 산업기반의 강화

● 체험형 문화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품격 높은‘문화도시’

- 향토 문화자원의 적극적 발굴 및 복원·정비
- 문화교류기반을 강화하고, 역사 유적지 및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관 광벨트 구축

- 중부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대학촌의 집중 육성으로 신·구문화의 조화 유지
- 전통축제 활성화 등 체험형 문화기반 조성

● 장수사회를 선호하는 ‘건강·복지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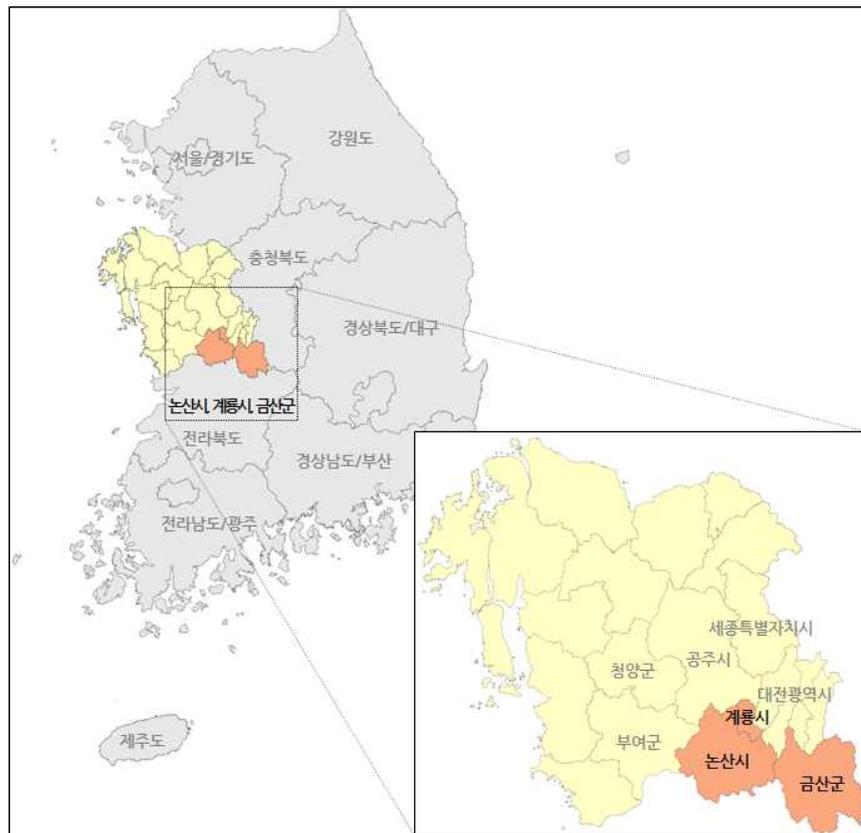
- 고령자를 위한 사회참여시스템 및 복지시스템 강구
- 농촌인구 특성을 감안한 여성·노인 복지시설의 확충
- 사회적 형평성이 제고된 더불어 사는 도시 구축
- 기존 시가지와의 연계성 및 접근성을 고려한 실버형 전원타운 조성

● 환경보전이 우선된 ‘환경공생도시’

- 환경우수지역 보존정책의 우선 추진
- 네트워크형 지역정비 개념 도입을 통한 환경보전과 개발과의 조화 유지
- 생태체험학습장 조성 등 환경자원을 관광상품으로 적극 활용

1) 입지여건

- 논산시와 계룡시, 금산군은 충청남도 남부지역에 위치하여, 국토의 중앙이자 충남과 영·호남의 분기점 역할을 함
- 광역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등과 연접해 있으며, 충청남도 내적으로는 부여군, 공주시와 연접해 있음
 - 상품소비, 문화활동, 시장이용 등에서 대전광역시 등 인접지역 영향을 받음



[그림 2-1]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의 지리적 위치

2) 자연환경

- 충남은 호서정맥이 충남 중앙부를 북동에서 북남에서 횡단하며 서북부지역과 동남부지역으로 분리되어 있음
 -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377개소에 달하고 있으나 산줄기 단절지점이 78개소(호서정맥 15개소, 금북기맥 63개소)로 조사
- 남동권은 금남기맥이 계룡시를 기점으로 북서에서 북동으로 가로지르며, 논산시와 금산군을 자연적으로 분리하고 있는 형상임
 - 산줄기 단절지점이 2개소이며,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71개소에 달함



[그림 2-2] 자연환경

출처 : 충남연구원, 충청남도 지역개발계획, 2016

2) 인문사회 환경

(1) 행정구역

- 남동권은 총 3읍 22면 3동으로 구성되며 1,192.21km²으로 충남 전체면적의 14.5%를 차지하고 있음
 - 논산시는 행정구역상 2읍 11면 2동으로 구성되며 총 면적은 554.81km²임
 - 계룡시는 2면 1동으로 구성되며 총 면적은 60.74km²임
 - 금산군은 1읍 9면으로 구성되며 총 면적은 576.66km²임
- 남동권은 총 7개 면을 중심으로 연접해 있음
 - 논산시는 상월면, 연산면, 벌곡면, 계룡시는 신도안면, 엄사면, 두마면, 금산군은 진산면이 다른 지자체와 연접해 있음
 - 논산시와 금산군은 벌곡면과 진산면 이외에 연계 지점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그림 2-3] 행정구역 현황도

(2) 인구변화 추이

- 충남의 인구는 같은 기간 연평균 0.7%의 인구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남동권 전체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논산시와 금산군은 연평균 0.3%와 0.7%의 인구감소추세가 발생하고 있음
 - 그러나 계룡시는 연평균 1.7%의 인구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천안시 등 북부권은 연평균 2.3%의 급격한 인구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북부권은 총 1,261,025명으로 이는 2005년 1,00,565명에 비해 260,463명이 늘어난 수치로, 북부권의 성장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됨
- 남동권의 인구는 충남 전체 인구 대비 10.6% 수준이며, 북부권과 비교해서는 약 17.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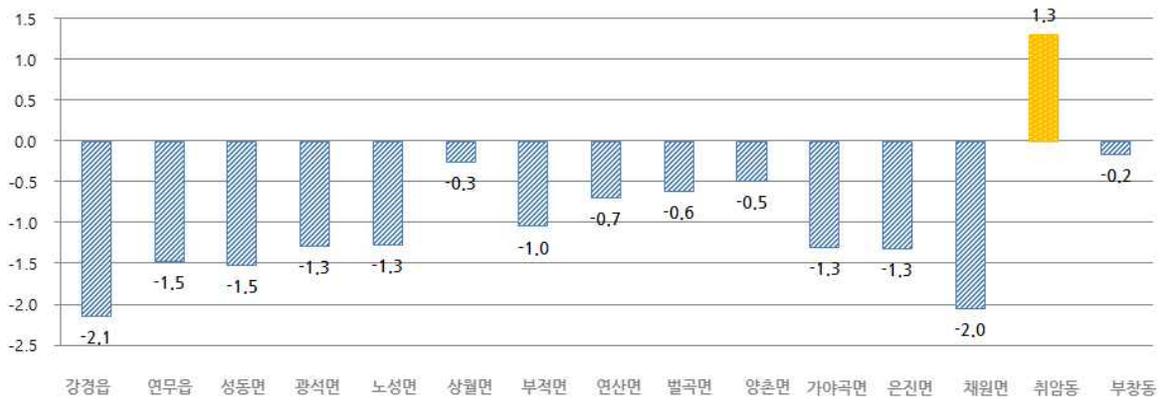
〈표 2-1〉 연도별 인구변화

(단위 : 명, %)

연도별 인구변화	2005	2008	2011	2014	연평균 증가율
충남	1,982,495	2,053,791	2,149,374	2,116,830	0.7
북부권	1,000,565	1,094,292	1,189,338	1,261,028	2.3
남동권	225,675	229,373	230,861	223,956	-0.1
충남대비	11.4%	11.2%	10.7%	10.6%	.
북부권 대비	22.6%	21.0%	19.4%	17.8%	.
논산시	132,210	130,114	130,710	128,077	-0.3
계룡시	34,451	41,579	43,115	40,713	1.7
금산군	59,014	57,680	57,036	55,166	-0.7

자료 : 충청남도,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각 년도 통계연보, 인구, 2016

- 논산시는 0.3%씩 인구감소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읍면별로 살펴보면, 강경읍과 채원면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강경읍은 2.1%, 채원면은 2.0%로 다른 읍면에 비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임
 - 반면, 취암동은 도시개발 등의 여파로 인해 연평균 1.3%의 인구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다른 읍면 지역의 인구가 유입된 결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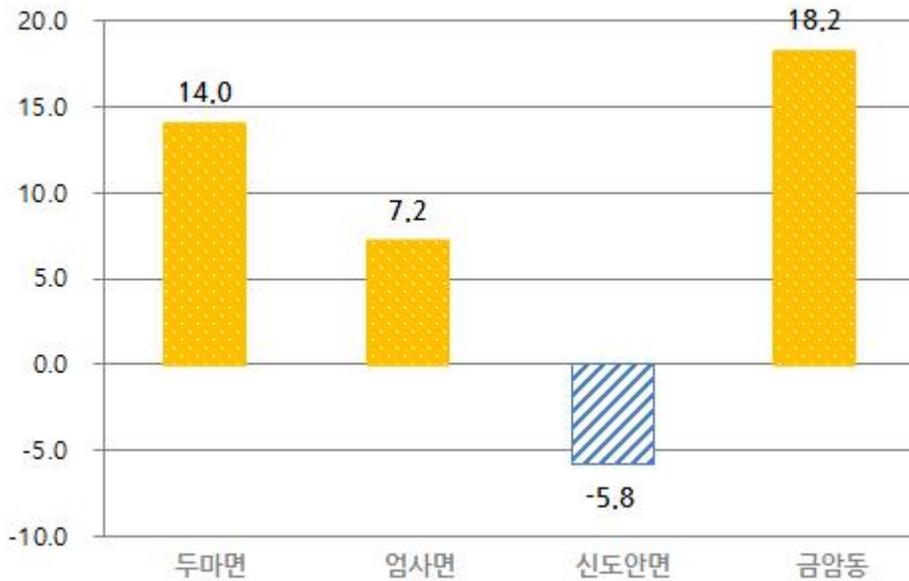


[그림 2-4] 논산시 인구증가율

출처 : 논산시, 각 년도 통계연보, 인구, 2016

● 계룡시는 전체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신도안면만 연평균 2.8%의 인구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나머지 지역, 특히 금암동의 급격한 성장세로 인해 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그림 2-5] 계룡시 인구증가율

출처 : 계룡시, 각 년도 통계연보, 인구, 2016

● 금산군은 모든 읍면지역에서 인구감소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모든 읍면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특히 부리면과 복수면, 추부면 등의 인구감소추세가 큰 편으로 분석됨
- 복수면과 추부면은 대전광역시와 인접해 있는데, 이러한 지리적 여건도 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2-6] 금산군 인구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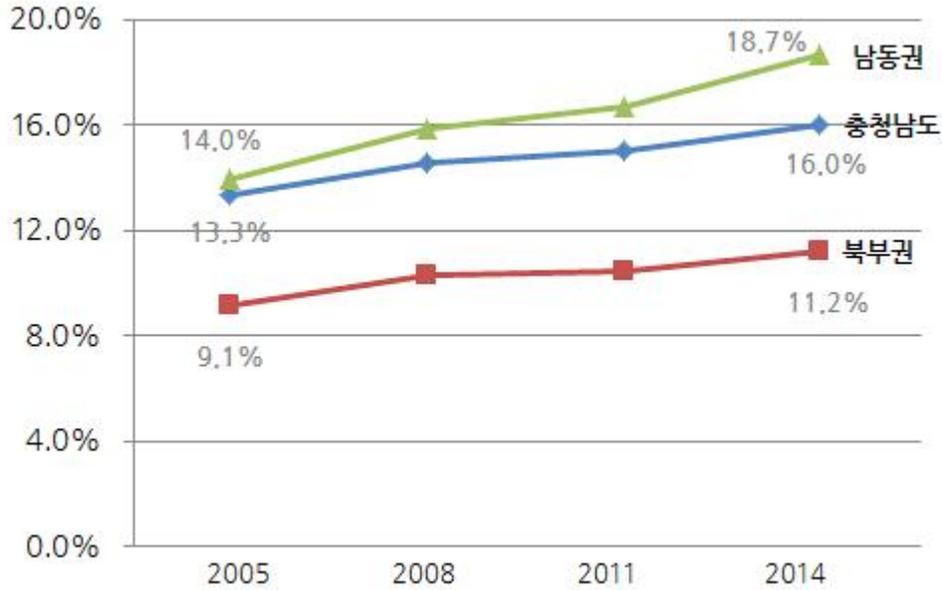
출처 : 금산군, 각 년도 통계연보, 인구, 2016

(3) 인구구조

- 남동권의 고령화수준은 18.7%로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됨
 - 충남의 고령화수준이 16.0%인 것에 비하면, 남동권의 고령화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북부권의 고령화수준은 11.2%로 이는 충남보다 낮은 수치이며, 특히 남동권과 비교해서는 약 7.5% 이상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 남동권의 고령화수준은 심각한 편으로, 지역사회의 고령화시대에 대응한 다양한 정책 및 시책, 사업 발굴이 요구되고 있음
 - 논산시는 고령화수준이 21.6%이며, 계룡시는 8.5%, 금산군은 26.0%로, 남동

권에서는 금산군의 고령화수준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계룡시는 8.5%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는데, 이는 계룡시가 군사시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지역적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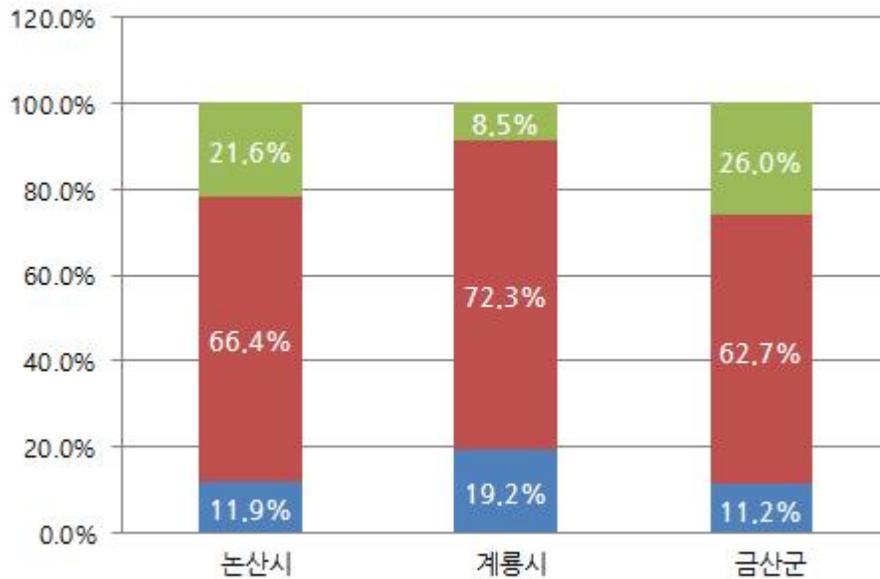


[그림 2-7] 연도별 고령화수준

출처 : 충청남도,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각 년도 통계연보, 인구, 2016

- 유년층이나 청장년층의 비율에서 계룡시가 논산시나 금산군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논산시 인구구조는 2014년 기준 15세 미만의 유년층 14,903명(11.9%),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청장년층 82,884명(66.4%), 65세 이상의 노년층 26,997명(21.6%)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계룡시 인구구조는 2014년 기준 15세 미만의 유년층 7,802명(19.2%),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청장년층 29,304명(72.3%), 65세 이상의 노년층 3,446명(8.5%)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금산군 인구구조는 2014년 기준 15세 미만의 유년층 6,051명(11.2%),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청장년층 33,768명(62.7%), 65세 이상의 노년층 14,007명 (26.0%)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2-8] 인구구조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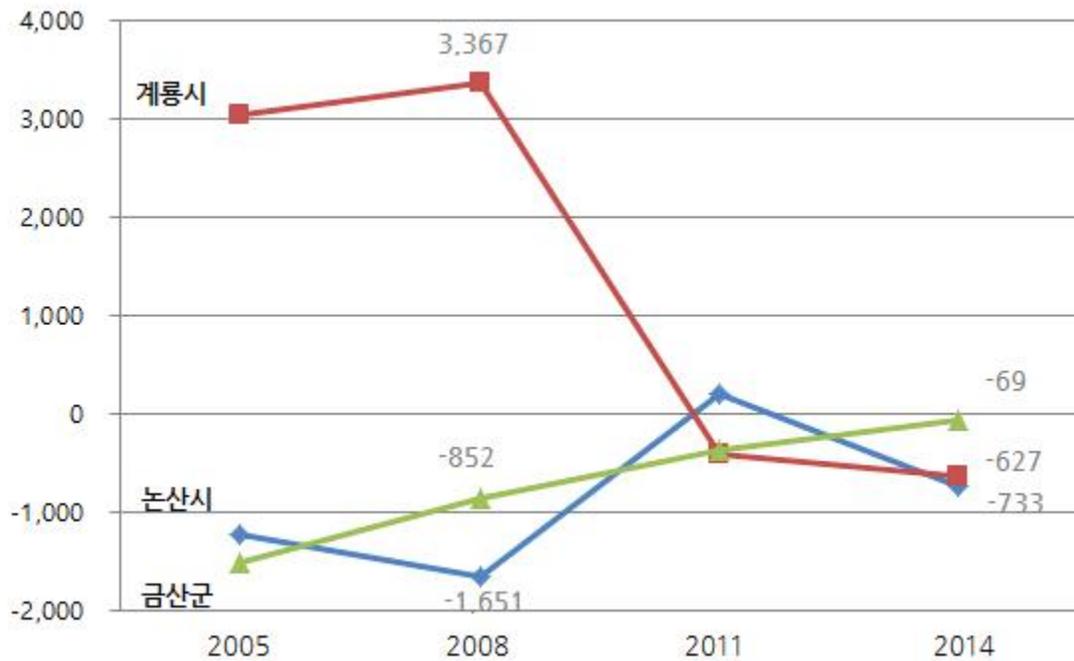
출처 :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각 년도 통계연보, 인구, 2016

(4) 인구이동

- 논산시의 인구이동추이는 2005년 1,231명이 순유출되었으나, 2014년에는 733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분석됨
 - 2011년에는 207명이 순유입되기도 하였으나 다시 인구유출추세를 보임
- 계룡시의 인구이동추이는 2005년 3,040명이 순유입되었으나, 2014년에는 627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분석됨
 - 2008년 기준 3,367명의 순유입이 이루어졌으나, 도시의 구조가 완성되고 대전 광역시 등과의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다시 순유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금산군의 인구이동추이는 2005년 1,518명이 순유출되었으며, 매년 인구유출 폭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005년 기준 1,518명의 순유출에서 2014년은 69명으로 인구유출폭이 급격히

줄어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인구유출 폭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인구유출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유출되는 인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인구 유출이 지속됨에 따라 이들의 지역 내 정착 유도를 위한 정주환경 개선, 교육 및 문화복지여건 개선,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등의 정책 및 시책 개발이 시급한 상황임



[그림 2-9] 연도별 인구이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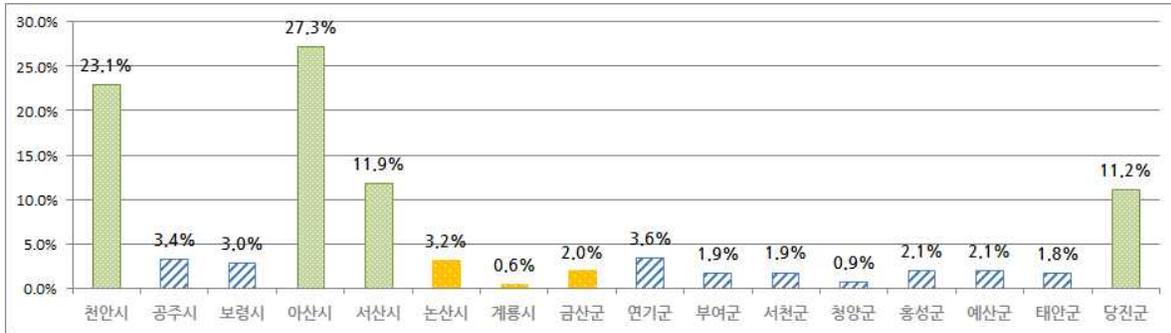
출처 :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각 년도 통계연보, 인구, 2016

3) 지역경제

(1) 지역총생산

- 남동권의 지역총생산액은 2011년 기준 4,957,642백만원으로 충남의 지역총생산액 84,881,675백만원의 5.84%를 차지하고 있음

- 북부권의 지역총생산액은 총 62,380,656백만원으로 충남 전체의 73.49%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남동권의 지역총생산액은 북부권 대비 7.9%에 불과한 수준임
- 남동권의 지역총생산액 수준은 매우 낮은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경제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기반마련이 절실함



[그림 2-10] 충청남도 지자체 GRDP 현황

출처 : 국가통계포털, 지역통계, 주제별, 시군구 GRDP, 2016, <http://kosis.kr/statisticsList>

(2) 산업구조

- 남동권은 1차산업과 3차산업의 비중이 높은 편임
 - 산업별 취업자 비중을 기준으로 남동권의 산업구조를 분석하면, 1차 산업과 3차 산업은 40.0%와 40.6%로 비교적 높은 반면, 2차 산업은 19.4%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됨
- 금산군은 2차 산업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반면, 계룡시는 2차 산업이 9.2%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됨
 - 지역별로는 논산시는 1차 산업과 3차 산업은 38.3%와 43.6%로 높지만, 2차 산업은 18.1%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됨
 - 계룡시는 1차 산업은 36.4% 수준이며, 3차 산업은 54.4%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2차 산업은 9.2%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됨
 - 금산군은 1차 산업은 44.1%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2차 산업과 3차 산업은

25.1%와 30.8%로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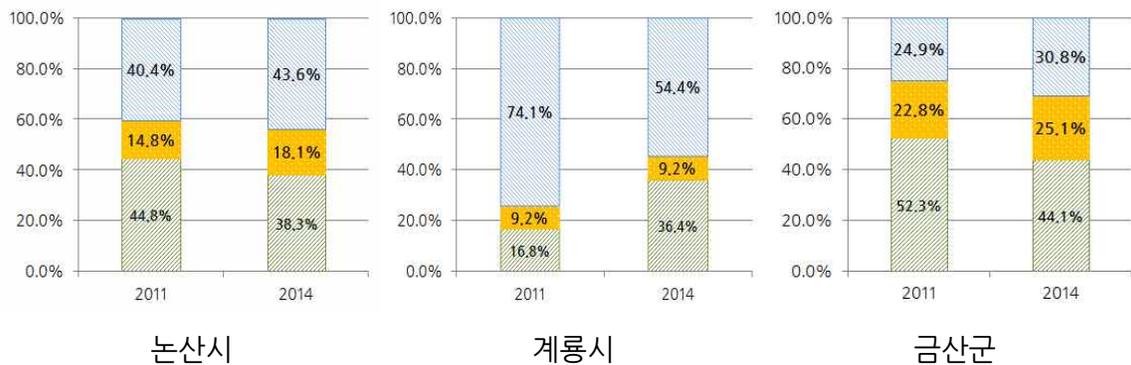
〈표 2-2〉 산업구조 현황

(단위 : 명, %)

연도별 인구변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충남	332,244	317,606	491,965
북부권	122,698	236,546	292,057
남동권	49,019	23,794	49,789
충남대비	14.8%	7.5%	10.1%
북부권 대비	40.0%	10.1%	17.0%
논산시	26,222	12,382	29,876
계룡시	4,991	1,262	7,467
금산군	17,806	10,150	12,446

자료 : 충청남도,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각 년도 통계연보, 인구, 2016

- 남동권은 1차 산업 비중이 축소되면서 2차3차 산업 비중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
 - 논산시는 2011년 대비 2014년에 1차 산업 비중이 축소되면서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 반면, 계룡시는 같은기간 1차 산업 비중이 확대되고, 3차 산업 비중이 축소됨
 - 금산군은 논산시와 마찬가지로 1차 산업 비중이 축소되면서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2-11] 연도별 산업구조 변화 현황

출처 :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각 년도 통계연보, 사업체 종사자수, 농림수산업, 2016

(3) 산업특화도

- 입지상 계수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산업은 계룡시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2.15), 교육 서비스업(2.07) 등이 있음
 - 논산시에서 입지상 계수가 가장 높은 산업은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1.17)이었으며, 다음으로 운수업(1.1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계룡시에서 입지상 계수가 가장 높은 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2.15), 교육 서비스업(2.0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금산군에서 입지상 계수가 가장 높은 산업은 광업(1.91), 제조업(1.4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1.4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논산시와 금산군은 1차2차 산업 분야에서, 계룡시는 2차3차 산업 분야에서 입지상 계수가 큰 특화산업이 비교적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2-3〉 산업대분류별 LQ지수(2014년)

(단위 : %)

산업분류명칭	북부권				남동권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농업, 임업 및 어업 (01 ~ 03)	0.45	0.74	1.09	1.15	1.05	0.98	1.26
광업 (05 ~ 08)	0.21	0.50	1.15	1.76	0.36	0.00	1.91
제조업 (10 ~ 33)	1.55	1.68	0.87	0.57	1.03	0.46	1.4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5 ~ 36)	0.52	0.91	1.39	1.08	0.52	2.15	1.47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7 ~ 39)	1.01	0.97	1.37	0.92	1.17	1.39	1.02
건설업 (41 ~ 42)	1.39	0.93	1.01	0.94	0.89	0.88	0.68
도매 및 소매업(45~47)	1.43	1.06	0.85	0.87	1.05	0.99	0.99
운수업(49~52)	1.64	1.39	0.96	0.82	1.12	0.69	0.49
숙박 및 음식점업 (55 ~ 56)	1.31	1.25	1.00	0.96	0.82	1.02	0.5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8 ~ 63)	1.61	1.41	0.56	0.75	1.00	1.52	0.68
금융 및 보험업 (64 ~ 66)	1.52	0.99	0.79	0.91	1.00	1.37	0.69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 ~ 69)	1.94	1.47	1.17	0.91	0.62	1.27	0.3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 ~ 73)	1.98	1.17	0.90	0.90	0.66	0.75	0.4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 ~ 75)	2.15	1.32	0.87	0.70	0.65	0.84	0.4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0.68	0.66	0.85	1.07	0.94	1.03	0.88
교육 서비스업(85)	1.74	1.27	0.74	1.00	0.82	2.07	0.5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1.54	1.55	0.88	0.75	0.98	1.65	0.6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1.68	1.23	1.07	0.81	0.91	1.32	0.5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1.41	1.08	0.90	0.92	1.09	1.15	0.67

자료 : 충청남도,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각 년도 통계연보, 사업체 종사자수, 농림수산업, 2016

(4) 산업단지 현황

- 남동권의 산업단지는 충남 전체의 13.4%, 북부권 대비 33.3% 수준에 불과함
 - 남동권 전체의 산업단지는 19개소로 이는 충남의 142개소, 북부권의 57개소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분석됨
 - 북부권과 비교해서, 조성면적과 입주업체수에서 있어서도 6.5%, 15.4%에 불과한 수준이며, 무엇보다 종업원수에 있어서 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북부권은 당진시와 서산시를 중심으로 한 국가산업단지, 다양한 일반산업단지 등이 밀집해 있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실정임
 - 반면, 남동권은 일반산업단지도 4개에 불과한 실정으로, 산업단지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시책 개발이 요구되는 실정임



[그림 2-12] 산업단지 현황

출처 : 충청연구원, 충청남도 제2차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연구, 착수보고자료, P.14, 2016

〈표 2-4〉 산업 및 농공단지 현황

(단위 : 개소, 명, 억원, 천불, %)

구분	단지수	총면적	입주업체수	종업원수	생산액	수출액
충청남도	142	105,376	2,110	124,991	502,052	36,320,810
북부권	57	72,463	1,270	100,186	411,240	33,887,665
남동권	19	4,721	195	7,424	32,294	1,351,254
충남 대비	13.4%	4.5%	9.2%	5.9%	6.4%	3.7%
북부권 대비	33.3%	6.5%	15.4%	7.4%	7.9%	4.0%
논산시	11	2,442	97	2,791	11,019	167,288
계룡시	2	516	25	647	831	154
금산군	6	1,763	73	3,986	20,444	1,183,812

자료 : 충청남도, 통계연보, 산업 및 농공단지, 2016

(5) 제조업 현황

- 남동권의 제조업체는 충남 대비 9.8%, 종사자수는 6.5%에 불과한 수준임
 - 충남과 비교해서 생산액은 3.1%, 출하액도 3.1% 수준에 불과함
 - 북부권과 비교해서도 제조업체서는 13.4%, 종사자수는 73.9%, 생산액과 출하액은 3.4%에 불과한 실정임
- 이는 남동권의 제조업 수준이 매우 열악한 실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남동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조업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사업체 및 종사자를 대규모로 확대할 수 있는 산업단지 등의 유치가 필요함

〈표 2-5〉 제조업 현황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

구분	사업체수	월평균종사자수	연간급여액	생산액	출하액
충청남도	3,740	233,785	9,941,753	177,044,534	176,802,128
북부권	2,732	191,211	8,584,951	160,666,738	160,467,648
남동권	367	15,097	461,027	5,500,843	5,439,465
충남 대비	9.8%	6.5%	4.6%	3.1%	3.1%
북부권 대비	13.4%	7.9%	5.4%	3.4%	3.4%
논산시	191	7,311	222,376	2,539,844	2,506,497
계룡시	14	508	11,069	140,856	140,952
금산군	162	7,278	227,582	2,820,143	2,792,016

자료 : 충청남도, 통계연보, 제조업, 2016

- 계룡시는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계룡시는 2014년 기준 14개의 사업체와 508명의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음
 - 논산시와 금산군은 연평균 4.1%와 3.7%의 사업체 감소가 발생하고 있음
 - 반면, 종사자수는 연평균 1.8%와 3.9%의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음

〈표 2-6〉 연차별 남동권 제조업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2005	2008	2011	2014	연평균 증가율
논산시	사업체수	290	151	183	191	-4.1
	종사자수	6,127	5,377	6,472	7,311	1.8
계룡시	사업체수	10	8	11	14	3.4
	종사자수	227	133	252	508	8.4
금산군	사업체수	231	114	137	159	-3.7
	종사자수	4,784	5,024	6,503	6,992	3.9

자료 :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각 년도 통계연보, 제조업, 2016

(6) 농가 및 농가인구

- 남동권의 농가는 충남 대비 13.2%, 북부권 대비 38.5%로 비교적 높은 수준임
 - 농가인구는 13.7%와 38.2%를 보이고 있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2-7〉 농가 및 농가인구 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분	농가		농가인구		
	계	전 업	계	남	여
충청남도	135,335	72,282	328,993	158,926	170,067
북부권	46,528	22,063	117,793	57,532	60,261
남동권	17,909	11,113	44,971	21,729	23,242
충남 대비	13.2%	15.4%	13.7%	13.7%	13.7%
북부권 대비	38.5%	50.4%	38.2%	37.8%	38.6%
논산시	9,931	6,806	25,733	12,290	13,443
계룡시	554	187	1,564	753	811
금산군	7,424	4,120	17,674	8,686	8,988

자료 : 충청남도, 통계연보, 농가 및 농가인구, 2016

● 남동권의 농가는 총 17,909개소에 44,971명이 종사하고 있음

- 논산시와 금산군의 농가 및 농가인구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반면, 계룡시는 농가와 농가인구의 비중이 연평균 6.4%와 5.3%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표 2-8〉 연차별 남동권 농가 및 농가인원 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분		2005	2008	2011	2014	연평균 증가율
논산시	농가	13,120	13,772	11,676	9,931	-2.7
	농가인구	36,258	36,270	31,326	25,733	-3.4
계룡시	농가	913	538	548	1,695	6.4
	농가인구	2,992	1,588	1,541	4,991	5.3
금산군	농가	8,848	8,176	7,299	7,424	-1.7
	농가인구	22,644	21,676	17,187	17,674	-2.4

자료 :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각 년도 통계연보, 광업 및 제조업, 2016

(7) 직주불균형

● 직장과 주거지의 공간적 일치현상을 나타내는 직주균형지수를 분석한 결과, 도내 시군 중에서 논산, 계룡, 금산 등 남동권 지역에 대해 고용과 정주환경 연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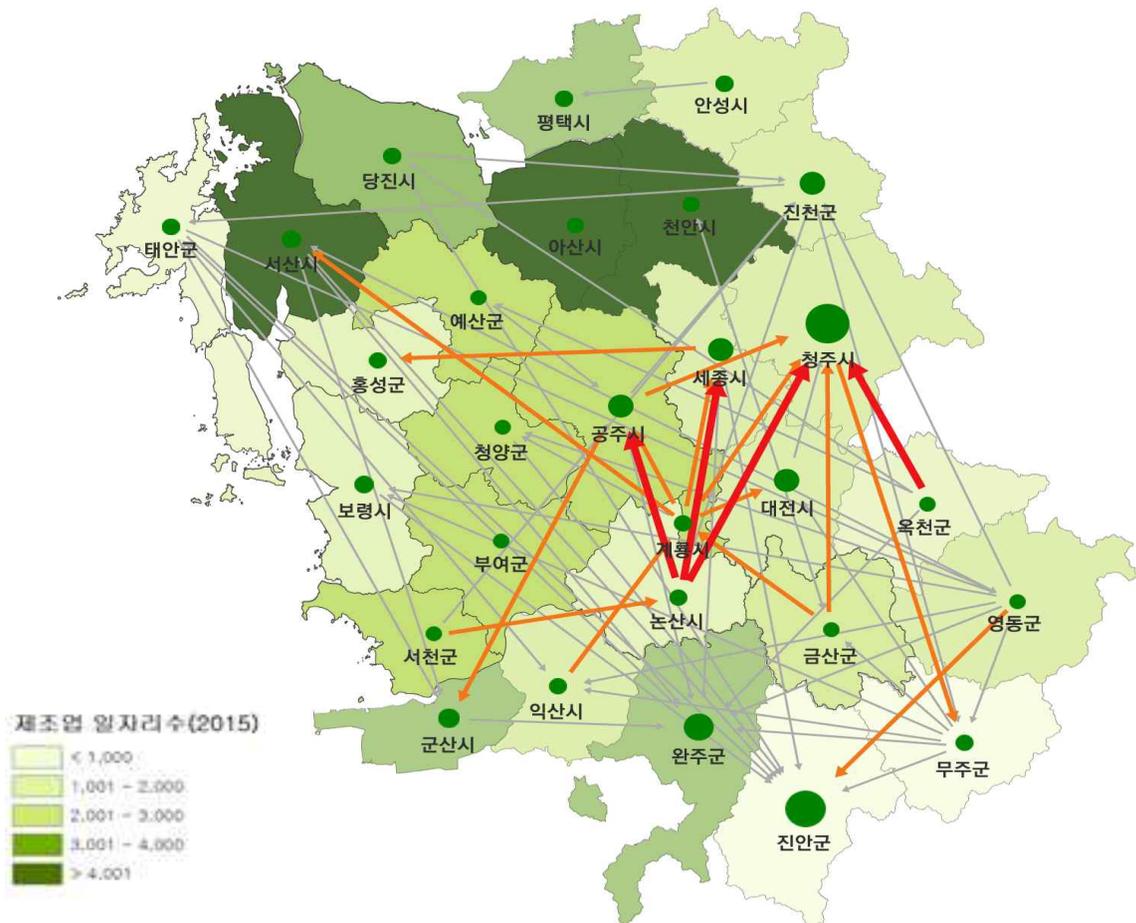
- 북부권에 포함되는 서산시, 천안시, 당진시는 직주불균형지수가 11.7%~12.6% 수준으로 비교적 직주불균형이 적은 것으로 분석됨

〈표 2-9〉 직주균형지수 현황

구분	출발도시	도착도시	직주불균형지수(%)
북부권	서산시	계룡시	12.6
	천안시	금산군	12.5
	당진시	진천군	11.7
남동권	논산시	세종시	37.4
	계룡시	청주시	29.3
	금산군	청주시	20.0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13. 전국 지역간 여객 O/D 설명자료

- 남동권의 직주불균형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 내 교통혼잡이나 환경오염, 정주 인구 감소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편임
 - 직주균형지수가 100%에 가까울수록 직주불일치(Spatial Mismatches)하는 경향을 의미하고, 비효율적인 통근(wasteful commuting) 패턴으로 인해 교통 혼잡,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
- 남동권의 직주불균형 지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지역 내 고용과 정주를 일치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예, 산업단지 유치, 공공시설 유치 등)을 위한 정책과 시책 개발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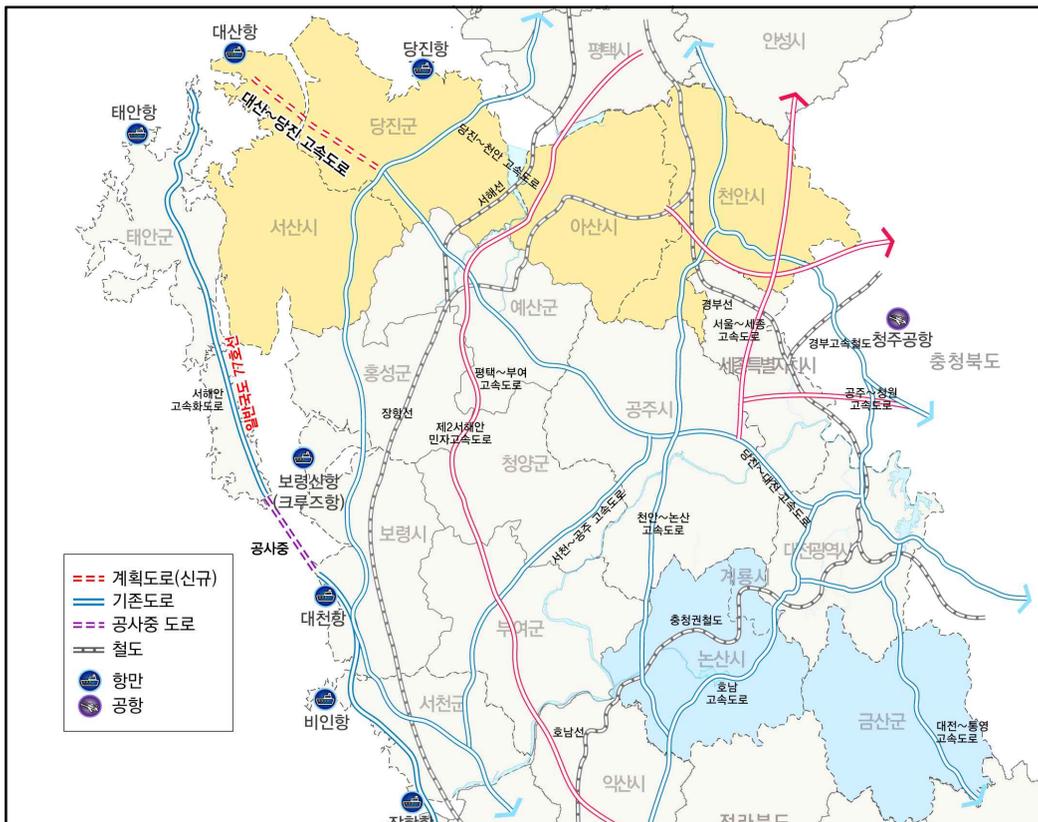


[그림 2-13] 충청권 지역 간 직주균형 실태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13. 전국 지역간 여객 O/D 설명자료

4) 교통 및 토지이용

(1) 광역교통현황

- 남동권은 남북축 위주의 광역교통망 체계를 형성하고 있음
 - 고속도로의 경우 호남고속도로와 대전-통영간고속도로 등이 통과하고 있으며, 철도는 호남고속철도가 통과하고 있음
 - 이러한 광역교통망이 남북축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논산시와 금산군과 같이 동서로 연결된 형태에 부합되는 교통망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
- 논산시와 금산군을 잇는 새로운 교통망 형성이 요구됨
 - 논산시와 금산군은 지방도68호선을 통해서만 연결되고 있어, 지역 간 유기적인 협력과 교류를 위해서는 새로운 도로망 형성이 필요한 실정임



[그림 2-14] 광역교통 현황

- 남동권의 도로 조성 수준은 충남의 14.8%, 북부권 대비 41.6% 수준에 불과함
 - 논산시는 총 연장 568km, 포장률 93.8%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계룡시는 총 연장 327km, 포장률 89.2%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금산군은 총 연장 126km, 포장률 96.9%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금산군은 지역 면적 대비 도로조성 수준이 낮은 편으로, 도로 확장을 통해 지역 내 연계성 확대 방안 모색이 필요함

〈표 2-10〉 도로현황

(단위 : km, m, %)

구분	합계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군	
	연장	포장률	소계	연장	포장률	연장	포장률	연장	포장률
충청남도	6,892	85.2	430	1,264	95.8	1,659	86.5	3,539	79.1
북부권	2,453	-	107	388	-	507	-	1,451	-
남동권	1,021	-	78	135	-	249	-	560	-
충남 대비	14.8%	-	18.0%	10.7%	-	15.0%	-	15.8%	-
북부권 대비	41.6%	-	72.4%	34.8%	-	49.1%	-	38.6%	-
논산시	568	93.8	49	67	100.0	132	95.6	320	90.7
계룡시	327	89.2	26	63	100.0	113	93.8	125	77.4
금산군	126	96.9	2	5	100.0	4	0.0	115	100.0

자료 : 충청남도, 통계연보, 교통, 2016

- 남동권의 철도수송은 논산시가 여객수입 약 72.18억원, 화물수입 0.72억원으로 가장 많은 편임
 - 계룡시는 여객수입 39.69억원으로 논산시보다는 작은 수준을 보임

〈표 2-11〉 철도수송 현황

(단위 : 명, 톤, 천원, %)

구분	여객			화물		
	승차인원	강차인원	여객수입	발송톤수	도착톤수	화물수입
논산시	934,037	939,790	7,218,082	278	106,546	72,322
계룡시	308,177	312,288	3,969,035	-	1,300	-
금산군	-	-	-	-	-	-

자료 :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각 년도 통계연보, 교통, 2016

(2) 물류현황

- 물류거점시설은 충남에 총 3개소가 입지하고 있으며, 모두 북부권에 입지함
 - 물류거점시설은 물류단지(1)와 화물터미널(2)로 구성되며, 아산시와 천안시의 도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 남동권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물류거점시설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함



[그림 2-15] 물류거점시설 현황

출처 : 충남연구원, 충청남도 제2차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연구, 착수보고자료, P.14. 2016

- 물류센터는 총 203개가 입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북부권에 밀집해 있음
 - 물류센터는 창고 10개소, 집하장 74개소, 기업물류센터 119개소로 구성됨
 - 집하장이나 기업물류센터는 교통의 편리성, 대기업 밀집도 등으로 인해 천안시, 당진시 등 북부권에 많은 수가 밀집해 있음
 - 남동권의 금산군에는 창고와 관련된 물류센터가 많이 입지하고 있음
- 금산군의 경우, 창고와 더불어 집하장이나 기업물류센터와 같은 실질적인 물류수

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의 도입이 필요함



[그림 2-16] 물류센터 현황

출처 : 충남연구원 충청남도 제2차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연구, 착수보고자료, P.15. 2016

(2) 용도지역 현황

- 남동권의 도시지역 면적은 총 128.5km²으로 충남의 14.2%를 차지하고 있음
 -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이 108.2km²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주거지역 15.2km², 공업지역 3.7km², 상업지역 1.4km²의 순으로 나타남
 -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의 비중이 크고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의 비중이 높아 실질적인 도시활동 전개에 어려움이 예상됨
- 남동권의 도시지역 면적은 북부권과 비교해서도 작은 편으로, 북부권은 499.1km²의 면적을 보이고 있음
 - 북부권 대비 남동권의 도시지역 면적은 25.7%에 불과한 수준으로, 도시지역 확장 및 개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 남동권의 비도시지역 면적은 총 1,063.4km²으로 충남의 13.5%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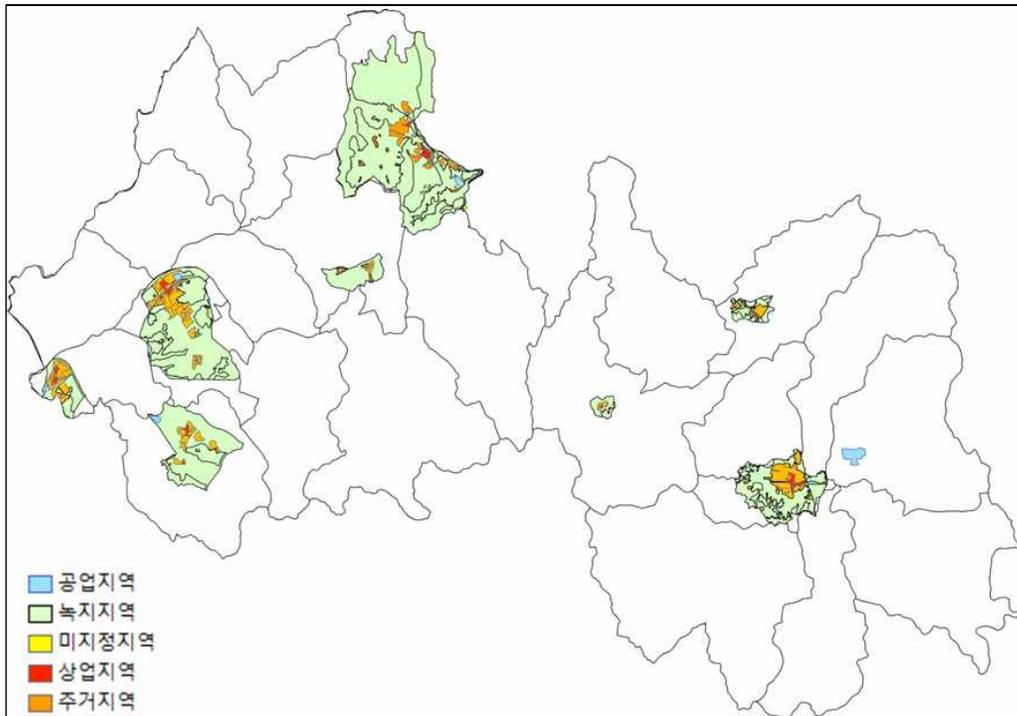
- 비도시지역 중 관리지역이 594.1km²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관리지역이 429.7km², 자연환경보전지역이 39.6km²의 순으로 나타남

〈표 2-12〉 용도지역 지정 현황

(단위 : km², %)

구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소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지역	소계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충남	903.4	128.4	14.9	114.9	589.2	56.0	7,859.0	3,126.1	4,005.7	727.2
북부권	499.1	73.3	7.9	85.6	278.4	53.9	2,191.8	996.8	1,152.5	42.5
남동권	128.5	15.2	1.4	3.7	108.2	0.0	1,063.4	429.7	594.1	39.6
충남 대비	14.2%	11.8%	9.7%	3.2%	18.4%	0.0%	13.5%	13.7%	14.8%	5.4%
북부권 대비	25.7%	20.7%	18.2%	4.3%	38.8%	0.0%	48.5%	43.1%	51.5%	93.0%
논산시	49.8	7.6	0.7	2.0	39.6	0.0	505.0	203.4	283.0	18.6
계룡시	49.2	3.8	0.3	0.7	44.4	0.0	11.5	0.0	0.0	11.5
금산군	29.4	3.8	0.4	1.0	24.2	0.0	546.9	226.3	311.1	9.5

자료 :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보서비스, 2015년 도시계획현황통계, 용도지역 현황, 2016



[그림 2-17] 도시적 용도지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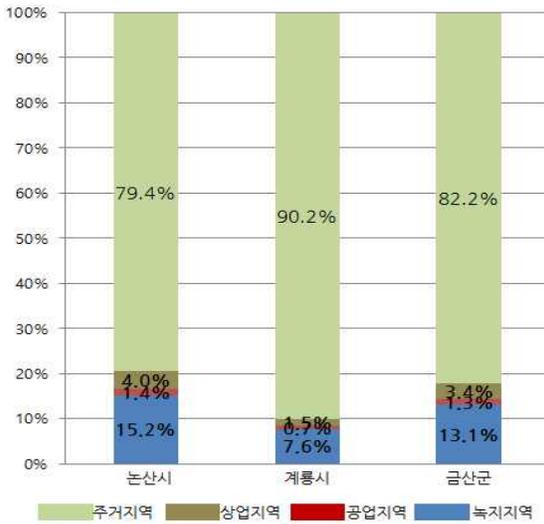
● 논산시와 계룡시의 도시지역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논산시는 49.8km², 계룡시는 49.2km² 규모로, 특히 계룡시는 전체 지역면적의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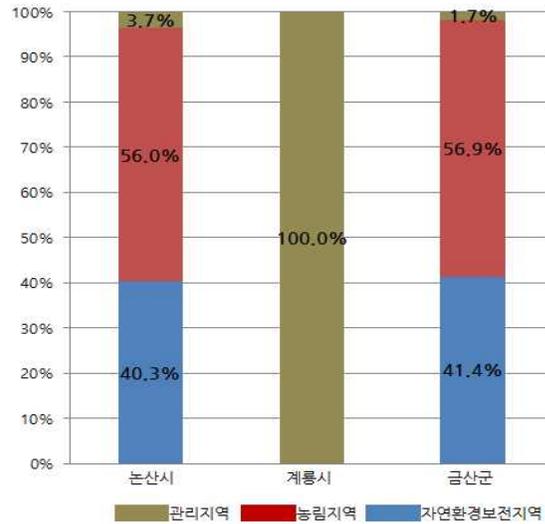
81.0%가 도시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금산군은 비도시지역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금산군은 도시지역이 29.4km²인데 비해, 비도시지역은 546.9km²으로 비도시지역이 전체의 9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계룡시의 비도시지역은 모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8] 도시적 용도지역 지정현황



[그림 2-19] 비도시적 용도지역 지정현황

● 1인당 도시지역 면적은 충남은 176.3m², 남동권은 425.8m², 북부권은 1,009.3m²으로 나타나고 있음

- 남동권의 1인당 도시지역 면적은 충남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지만, 북부권과 대비하여서는 매우 적은 편으로, 도시지역 확장 및 개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 특히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의 비중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으로, 남동권은 77.2m²인데 반해, 북부권은 638.9m²으로 약 9배 정도의 면적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표 2-13〉 인구 1인당 도시지역 면적

(단위 : m², %)

구분	도시지역 인구	도시지역면적	1인당 면적				
			소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충남	1,464,384.0	903,409,823.0	176.3	87.7	10.2	78.5	402.4
북부권	976,560.0	499,078,845.0	1,009.3	333.2	37.2	638.9	1,574.6
남동권	147,027.0	128,475,926.0	425.8	318.3	30.3	77.2	2,393.1
충남 대비	10.0%	14.2%	241.5%	363.1%	298.0%	98.3%	594.8%
북부권 대비	15.1%	25.7%	42.2%	95.5%	81.5%	12.1%	152.0%
논산시	75,175.0	49,847,710.0	136.5	100.7	9.6	26.2	526.6
계룡시	41,730.0	49,221,981.0	116.0	90.2	8.2	17.6	1,063.6
금산군	30,122.0	29,406,235.0	173.3	127.5	12.5	33.4	802.9

자료 :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보서비스, 2015년 도시계획현황통계, 1인당 도시지역 면적현황, 2016

5) 생활환경

(1) 공원

- 남동권의 공원은 총 146개소, 3,641,901천m² 규모임
 - 충남 대비 12.2% 수준이며, 북부권과 비교해서도 20.9% 수준임
-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논산시 9.4천m²/인, 계룡시 26.9천m²/인, 금산군 23.7천m²/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 충남은 20.7천m²/인으로 논산시는 도시공원 면적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표 2-14〉 공원 현황

(단위 : 개소, 천m²)

구분	합계		자연공원		도시공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충남	1,201.0	44,394,912.0	5.0	512,232.0	1,196.0	43,882,680.0
북부권	698.0	27,747,892.0	1.0	353.0	697.0	27,747,539.0
남동권	146.0	3,641,901.0	4.0	38,791.0	142.0	3,603,110.0
충남 대비	12.2%	8.2%	80.0%	7.6%	11.9%	8.2%
북부권 대비	20.9%	13.1%	400.0%	10989.0%	20.4%	13.0%
논산시	87.0	1,221,410.0	2.0	18,506.0	85.0	1,202,904.0
계룡시	28.0	1,106,746.0	1.0	11,899.0	27.0	1,094,847.0
금산군	31.0	1,313,745.0	1.0	8,386.0	30.0	1,305,359.0

자료 : 충청남도, 2015년 통계연보, 공원, 2016

(2) 상·하수도

● 남동권의 상수도와 하수도 보급률은비교적 양호한 수준임

- 상수도의 경우, 보급률이 논산시는 92.0%, 계룡시는 99.2%, 금산군은 94.7%로 충남의 92.2%와 비슷하거나 높으며, 북부권과 비교해서도 양호한 수준임
- 하수도의 경우, 보급률이 논산시는 60.3%, 계룡시는 94.7%, 금산군은 71.0%로 충남의 72.7%, 북부권의 73.4%에 비해 평균적으로 비슷함

● 금산군의 경우 하수도 보급률이 60.3%로 낮은 수준임에 따라,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확충이 필요함

〈표 2-15〉 상수도 및 하수도 현황

(단위 : 명, %)

구분	상수도			하수도			
	총인구	급수인구	보급률	총인구	비처리인구	하수종말처리인구	보급률
충남	2,116,830.0	1,951,743.0	92.2	2,116,830.0	578,660.0	1,538,170.0	72.7
북부권	1,261,028.0	1,172,475.0	92.6	1,261,028.0	250,901.0	1,010,127.0	73.4
남동권	225,296.0	211,769.0	95.3	225,296.0	69,349.0	155,947.0	75.4
충남 대비	10.6%	10.9%	·	10.6%	12.0%	10.1%	·
북부권 대비	17.9%	18.1%	·	17.9%	27.6%	15.4%	·
논산시	128,077.0	117,858.0	92.0	128,077.0	50,819.0	77,258.0	60.3
계룡시	40,713.0	40,380.0	99.2	40,713.0	2,149.0	38,564.0	94.7
금산군	56,506.0	53,531.0	94.7	56,506.0	16,381.0	40,125.0	71.0

자료 : 충청남도, 2015년 통계연보, 상수도, 하수도, 2016

(3) 의료 및 교육시설

● 남동권의 의료기관은 총 264개소이며, 이 중 공공보건기관은 142개소로 전체의 53.8%를 차지하고 있음

- 종합병원은 논산시에 1개소, 병원은 전체에 6개소가 있으며, 나머지는 소규모 병의원 등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음
-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은 총 142개소로, 공공보건기관이 남동권 의료서비스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남동권의 의료기관 조성 수준은 충남의 12.5%, 북부권의 21.9%에 개선이 필요함
 - 특히 종합병원이나 병원의 상당수가 북부권에 밀집되어 있어,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임
 -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있는 남동권에 대한 개선이나 시설확충이 필요함

〈표 2-16〉 의료기관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합계	종합병원	병원	기타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지료소
충남	2,110.0	12.0	40.0	2,058.0	999.0	16.0	66.0
북부권	1,206.0	7.0	22.0	1,177.0	567.0	7.0	26.0
남동권	264.0	1.0	6.0	257.0	127.0	1.0	14.0
충남 대비	12.5%	8.3%	15.0%	12.5%	12.7%	6.3%	21.2%
북부권 대비	21.9%	14.3%	27.3%	21.8%	22.4%	14.3%	53.8%
논산시	157.0	1.0	3.0	153.0	76.0	1.0	11.0
계룡시	39.0	-	2.0	37.0	17.0	-	-
금산군	68.0	-	1.0	67.0	34.0	-	3.0

자료 : 충청남도, 2015년 통계연보, 의료기관, 2016

- 남동권의 학생수는 총 40,091명으로 충남의 9.7%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충남의 학생수는 총 413,064명이며, 북부권은 284,479명으로 지역별 인구규모 차이를 고려해도 남동권의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 교육기관의 수에서 있어서도, 남동권의 경우 초등학교 56개소, 중학교 25개소, 고등학교 19개소, 대학교 4개소에 불과한 실정임
 - 남동권 내 교육기관이 부족한 것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이로 인한 학생수 감소, 취학 학생의 도시이동이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음
- 지역 내 인구증가 및 정주환경 제고를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중등 이상의 교육기관을 다수 확충하는 것이 필요함
 - 특성화된 중등 교육 이상의 교육기관을 유치함으로써, 현재의 교육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제고가 필요함

〈표 2-17〉 교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분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수	원 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충남	413,064	503	419	115,484	188	65,223	116	73,563	33	158,291
북부권	284,479	239	177	77,528	77	42,019	48	44,272	19	120,421
남동권	40,091	57	56	11,418	25	6,799	19	8,560	4	13,257
충남 대비	9.7%	11.3%	13.4%	9.9%	13.3%	10.4%	16.4%	11.6%	12.1%	8.4%
북부권 대비	14.1%	23.8%	31.6%	14.7%	32.5%	16.2%	39.6%	19.3%	21.1%	11.0%
논산시	20,996	32	34	6,099	14	3,518	13	5,597	3	5,750
계룡시	6,496	8	5	3,023	3	1,950	2	1,515	0	0
금산군	12,599	17	17	2,296	8	1,331	4	1,448	1	7,507

자료 : 충청남도, 2015년 통계연보, 교육시설, 2016

(4) 공공문화체육시설

- 남동권은 전체 지역 면적에 비해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남동권의 전체 공공문화체육시설은 119개소로 이는 충남 전체 966개소의 12.3%, 북부권 472개소의 25.2%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 남동권은 총 119개소의 공공문화체육시설 중 공공체육시설이 101개소에 달하여, 실질적인 문화서비스 제고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계룡시나 금산군의 경우, 전문 전시시설은 아예 전무한 실정임

〈표 2-18〉 문화 및 공공체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문화공간				공공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공연시설	전시실	지역문화복지시설	기타시설		
충남	51	10	17	39	800	49
북부권	33	5	6	8	401	19
남동권	4	1	3	5	101	5
충남 대비	7.8%	10.0%	17.6%	12.8%	12.6%	10.2%
북부권 대비	12.1%	20.0%	50.0%	62.5%	25.2%	26.3%
논산시	2	1	1	2	40	2
계룡시	1	0	1	0	36	0
금산군	1	0	1	3	25	3

자료 : 충청남도, 2015년 통계연보, 문화공간,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2016

(5) 사회복지시설

● 남동권의 사회복지시설은 68개소로 충남의 18.8% 수준임

- 노인의료시설이 가장 많으며, 여성복지에 대한 시설은 2개소에 불과함
- 논산시는 33개소의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을 보유한 반면, 계룡시는 노인의료시설 중심의 사회복지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표 2-19〉 사회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분	합계	아동복지	노인의료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충남	361	35	257	58	11
북부권	163	22	109	26	6
남동권	68	6	50	10	2
충남 대비	18.8%	17.1%	19.5%	17.2%	18.2%
북부권 대비	41.7%	27.3%	45.9%	38.5%	33.3%
논산시	33	3	24	5	1
계룡시	10	-	9	-	1
금산군	25	3	17	5	0

자료 : 충청남도, 2015년 통계연보, 보건사회보장, 2016

● 노인여가 복지시설은 총 876개소로 충남의 15.7%, 북부권 대비 45.3% 수준임

- 경로당(864개소)을 중심으로 노인여가 복지시설이 구성되어 있음
- 노인복지관은 계룡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논산시 등의 추가 설치가 필요함

〈표 2-20〉 노인여가 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분	합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시설	종사자		
충남	5,588	14	197	5,495	79
북부권	1,933	5	86	1,885	43
남동권	876	1	13	864	11
충남 대비	15.7%	7.1%	6.6%	15.7%	13.9%
북부권 대비	45.3%	20.0%	15.1%	45.8%	25.6%
논산시	519	0	0	508	11
계룡시	35	1	13	34	0
금산군	322	0	0	322	0

자료 : 충청남도, 2015년 통계연보, 보건사회보장, 2016

6) 문화관광자원

(1) 축제

● 남동권은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논산시는 대둔산논산수락계곡얼음축제, 논산딸기축제 등 4개, 계룡시는 계룡군 문화축제 1개, 금산군은 금산인삼축제, 금강여울축제 2개의 대표 축제가 개최되고 있음

〈표 2-21〉 지역별 축제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개수	축제명
충남	56(95)	-
북부권	천안시 6(5)	천안판페스티벌, 북면위례벚꽃축제, 광덕호두축제, 입장거봉포도축제, 천안성환배축제, 천안홍타령춤축제
	아산시 1(5)	외암민속마을짚풀문화제
	서산시 5(7)	서산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서산국화축제, 삼길포우렁축제, 삼길포독살체험축제, 지곡권역갯마을빨나지먹물축제
	당진시 2(15)	기지사줄다리기민속축제, 심훈상록문화제
남동권	논산시 4(6)	대둔산논산수락계곡얼음축제, 논산딸기축제, 강경발효젓갈축제, 연산대추축제
	계룡시 1(1)	계룡군문화축제
	금산군 2(3)	금산인삼축제, 금강여울축제

주 : 괄호안은 충남관광기본자료 내 축제개최수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 지역축제 총괄표, 2015 ; 충청남도, 2015 충남관광기본자료, 2015

● 이외 다양한 지역 축제가 지자체별로 개최되고 있음

- 앞 서 제시된 7개의 축제는 등록된 축제로, 이외에도 다수의 지역·마을별 축제가 연중 개최되고 있음
- 다양한 지역·마을별 축제를 통해, 지역의 이미지 홍보 및 외부 관광객의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표 2-22〉 지역별·마을별 축제현황

구분	축제명	개최시기	기간(일)	주관/주최	축제종류	최초개최년도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8/9일	1	백중놀이전승보존위원회 등	전통민속	1992
	양촌곶감축제	11월	2	양촌곶감축제 추진위원회	특산물축제	2003
계룡시	계룡축제	10월초	2	계룡출장소/계룡출장소	기타	2004
금산군	산악벚꽃축제	4월15일~	10	금산문화원	자연생태	2000
	비단고을산꽃축제	4월	40	금산문화원 등	전통민속	2000
	장동달맞이축제	2월22~23일	2	금산문화원	전통민속	1993
	금강민속축제	7월말~8월초	2	금산문화원	전통민속	1993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2016

(2) 역사문화자원

● 역사자원은 총 154개로 충남의 15.1%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음

- 국가지정문화재는 총 20개(보물 10개 등), 지방지정문화재 총 66개, 문화재자료 58개, 등록문화재 10개를 보유하고 있음

- 논산시는 105개, 계룡시 8개, 금산군 41개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음

● 남동권은 백제문화 뿐만 아니라 기호유교문화와도 연계됨에 따라, 문화재에 대한 추가 발굴 및 활용방안 모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표 2-23〉 문화재 유형별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총계	국가지정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
		소계	국보	보물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	소계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무형문화재		
충남	1,017	232	27	106	52	14	25	8	422	185	161	27	49	313	50
북부권	254	55	3	30	8	3	9	2	94	33	42	11	8	79	26
남동권	154	20	0	10	3	3	3	1	66	34	21	4	7	58	10
충남 대비	15.1%	8.6%		9.4%	5.8%	21.4%	12.0%	12.5%	15.6%	18.4%	13.0%	14.8%	14.3%	18.5%	20.0%
북부권 대비	60.6%	36.4%		33.3%	37.5%	100.0%	33.3%	50.0%	70.2%	103.0%	50.0%	36.4%	87.5%	73.4%	38.5%
논산시	105	15	0	9	2	1	3	0	46	25	15	3	3	34	10
계룡시	8	0	0	0	0	0	0	0	4	1	1	1	1	4	0
금산군	41	5	0	1	1	2	0	1	16	8	5	0	3	20	0

자료 : 충청남도, 2015년 통계연보, 문화재, 2016

(3) 관광자원

- 충남에는 총 27개(16.3km²)의 관광지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남동권에는 관광지가 지정·운영되고 있지 않음
 - 천안시 등 북부권에 10개소(4.8km²)가 지정되어 있으며 논산, 계룡, 금산군 등 남부권에는 지정관광지가 전무한 실정임

〈표 2-24〉 지정관광지 현황(2014년 기준)

(단위 : 개소, km²)

구분	북부권						남동권			
	소계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소계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개소	27	10	4	2	1	3	0	-	-	-
면적	16.3	4.8	3.0	1.1	0.1	0.5	0	-	-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4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2015

- 남동권의 주요 지정별 관광객수는 총 1.2백만명으로 충남 전체의 6.9% 수준임
 - 지점수는 총 9개소로 이들의 평균값은 335,099%임
 - 이는 충남과 비교하여 관광객수 6.9%, 지점수는 8.7%에 불과한 수준으로 관광객 확대를 위한 보다 많은 노력과 시설확충 및 개선 등이 필요함
- 북부권의 관광객은 5.5백만명으로 남동권에 비해 4.5배 이상 큰 편임
 - 남동권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독립기념관(천안) 같이 관광집객시설 확충 필요

〈표 2-25〉 주요 지점별 관광객 수(2014년 기준)

(단위 : 명, %, 개소)

구분	관광객수	비중	지점별 평균값	지점수
충남	17,520,905	.	168,470	104
북부권	5,503,114	31.4%	1,506,297	20
남동권	1,213,873	6.9%	335,099	9
충남 대비	6.9%	.	198.9%	8.7%
북부권 대비	22.1%	.	22.2%	45.0%
논산시	181,962	1.0%	45,491	4
계룡시	42,173	0.2%	42,173	1
금산군	989,738	5.6%	247,435	4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관광지식정보시스템

7) 도시의 지속가능성

- 남동권 지속가능성 수준을 검토하기 위한, 도시의 지속가능성 지표에 대한 분석 결과, 남동권은 도시경제와 관련된 분야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
 - 북부권은 도시경제 및 환경, 지원체계부분에 대한 수준이 비교적 양호하고, 개선과제도 방재 및 재난안전 등에 대한 개선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반면, 남동권은 다른 분야도 요구되고 있지만, 고부가가치산업 유치, 시가화구역의 효율적 토지이용 계획 등과 같은 세부 분야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남동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도시경제를 중심으로 나머지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26〉 도시의 지속가능성 지표 분석 결과

구분		사회 부문	경제 부문	환경 부문	지원 체계	종합의견
북부권	천안시	3.26 (3.02)	2.70 (3.01)	2.52 (2.97)	2.35 (2.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경제, 도시환경, 지원체계부분 양호, 도시사회부분 미흡 ▪ 방재안전시설 확충 및 양호한 주택 제공 필요
	아산시	3.30 (3.02)	2.30 (3.01)	1.81 (2.97)	2.55 (2.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경제, 도시환경, 지원체계부분 양호, 도시사회부분 미흡 ▪ 재난예방시설 및 인원 확충, 사회복지 확충 필요 ▪ 시가화구역의 효율적 토지이용 계획과 정책 추진 필요
	서산시	3.10 (3.02)	2.50 (3.01)	2.49 (2.97)	2.50 (2.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부문이 타지자체에 비하여 양호 ▪ 재난예방시설 및 인원 확충 ▪ 시가화구역의 효율적 토지이용 계획과 정책 추진 필요
	당진시	3.67 (3.02)	2.10 (3.01)	3.07 (2.97)	2.75 (2.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경제, 지원체계부분 양호, 도시사회, 도시환경부분 미흡 ▪ 재난예방시설 및 인원 확충, 대중교통 활성화 및 시설 확충 대책 필요
남동권	논산시	3.14 (3.02)	3.40 (3.01)	3.36 (2.97)	3.00 (2.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부문이 타지자체에 비하여 미흡 ▪ 방재안전 정책 추진, 고부가가치산업 유치 필요 ▪ 시가화구역의 효율적 토지이용 계획과 정책 추진 필요
	계룡시	2.72 (3.02)	3.70 (3.01)	2.85 (2.97)	2.75 (2.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사회, 도시환경, 지원체계부분 양호, 도시경제부분 미흡 ▪ 고부가가치산업 유치, 교통 안정화 대책 및 시가화구역의 효율적 토지이용 계획과 정책 추진 필요
	금산군	2.71 (3.02)	3.10 (3.01)	2.96 (2.97)	2.45 (2.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사회, 도시환경, 지원체계부분 양호 ▪ 시가화구역의 효율적 토지이용 계획과 정책 추진 필요

자료 :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2015년 도시의 지속가능성, 2016

주1) 등급 1(매우우수, 상위 20%), 2(우수, 60~80%), 3(보통, 40~60%), 4(미흡, 20~40%), 5(매우미흡, 하위 20%)

주2) 회색 : 지표값이 클수록 점수나 등급이 낮아지는 하향지표

주3) 구분등급 안 () : 등급 전국 평균

1) 지역별 중심지 계층구조 분석

(1) 분석방법

- 중심기능의 규모(중심성)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중심지 계층을 구분하고, 그 특징을 설명함
- 중심성 지수는 일정 중심지가 주변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크기 정도를 측정하는 것임
- 일반적으로 중심지의 인구규모, 중심기능 유형의 수, 중심기능의 시설수(기능체수)를 변수로 이용함(박영한, 1975)
- 분석방법은 데이비스(W. K. D. Davies)의 기능지수법을 사용하여 기능지수를 구하고, 군집분석에 의하여 계층을 구분함²⁾

- 중심기능은 2단계의 과정을 거쳐 산출하며, 각 기능에 대한 입지계수를 구함

$$C = \frac{t}{T} \times 100 = \frac{1}{T} \times 100$$

C : 기능 t 의 입지계수
 t : 기능 t 의 하나의 시설수
 T : 중심지체계내에 있는 기능 t 의 모든 시설수

- 각 중심지가 보유하는 일정 기능유형의 시설수에 그 기능의 입지계수를 곱하

1) 충남연구원, 논산·계룡·금산생활권의 지역구조 분석, 2014. 내부자료

2) 일정 장소에서 나타나는 어떤 기능의 중심성의 양은 그 장소에 입지한 시설수에 비례하며, 연구지역 전체가 폐쇄시스템(closed system)이라는 조건 아래 특정기능의 시설수가 많을수록 그 기능의 중심성이 낮은 것으로 간주하게 됨(김정연, 1999)

여 그 중심지의 일정 기능유형이 가지는 중심성의 양을 얻은 후 그 중심지의 총체적인 중심성인 기능지수를 구함

$$F_a = \sum A_t \times C_t$$

C_t : 기능 t 의 입지계수
 A_t : 기능 t 의 시설수
 F_a : 중심지 A 의 기능지수

(2) 이용자료

- 분석은 한국전화번호부(주)를 활용하여, 중심성을 나타낼 수 있는 업종들을 구분한 후, 시·군별 동부지역 및 읍·면별로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을 수행함

〈표 3-1〉 중심성을 나타낼 수 있는 업종의 구분(2013년 전화번호부)

번호	전화번호부 시설명	번호	전화번호부 시설명	번호	전화번호부 시설명
1	PC방	26	병원(종합)	51	자전거
2	가구	27	병원/의원	52	잡화점
3	가전제품수리(전파사)	28	보일러	53	제과점
4	가전제품판매	29	사료	54	조명기구
5	건강식품제조/판매	30	사무기기	55	주방기구
6	건강원	31	사진	56	주방기구
7	귀금속/시계/장신구/금은방	32	사회복지시설	57	철물점
8	금융업(새마을금고/신협/은행)	33	서점	58	침구류판매
9	꽃집(화원)	34	세탁소	59	카센터
10	내의	35	술집	60	커튼
11	노래방	36	슈퍼마켓	61	커피전문점
12	농기구	37	신발판매	62	컴퓨터/주변기기
13	농약판매	38	아동복/유아복	63	컴퓨터수리
14	다방	39	안경점	64	통신/전화서비스
15	닭집/치킨센터	40	약국	65	통신관련서비스
16	당구장	41	예식장	66	패스트푸드
17	동물병원	42	오토바이/부품 판매/수리	67	편의점
18	등산용품/장비	43	우유/분유	68	피부미용
19	떡/한과/유과	44	우체국/우편취급소	69	학교-초등학교
20	목공소	45	운동기구/경기용품	70	학교-대학교
21	목욕탕/사우나/찜질방	46	유리/거울	71	학교-중.고등학교
22	문구/사무용품	47	음식점(?)	72	화장품판매
23	미용실	48	의류	73	관공서
24	방앗간/정미소	49	이발소	총 73개 시설	
25	병원(일반)	50	자동차부품판매		

자료 : 충남연구원(2014), 농촌중심지 육성 및 정비사업의 성과분석과 향후 추진전략, p.100.

(3) 분석결과

■ 논산시 중심지 계층구조

- 논산시의 동·읍·면별 중심지 기능지수를 도출하여, 군집분석을 실행한 후 계층구조를 분석한 결과, 총 4개의 군집으로 계층을 나눌 수 있음
- 제1계층은 논산시 동부지역으로 중심성 비중이 전체의 64.51%에 달해 논산시에서 높은 중심지 기능을 나타냄
- 제2계층은 연무읍과 강경읍으로서 각각 11.72%, 10.73%를 나타내며, 동부지역 다음으로 지역의 부차적인 중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하지만 1계층과 2계층 간의 차이와 2계층과 3~4계층간의 차이가 월등히 높아, 시청 소재지인 동부지역과는 대조적으로 3~4계층은 농촌중심지의 정주환경 기초서비스 기능으로 볼 수 있음
- 제3계층의 경우 연산면으로서 3.92%의 중심성을 보임
- 제4계층의 경우 논산시 전체에서 각각 0.43%~1.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촌면, 부적면, 가야곡면, 광석면, 은진면, 노성면, 상월면, 채운면, 성동면, 벌곡면 등의 높은 순으로 나타나 가장 작은 범주의 중심성을 보임

〈표 3-2〉 논산시의 중심지 계층구조

행정구역	중심지 기능지수	계층	중심성 비중
논산시 동부	4,709.27	1	64.51
연무읍	855.40	2	11.72
강경읍	783.14	2	10.73
연산면	285.85	3	3.92
양촌면	138.75	4	1.90
부적면	91.61	4	1.25
가야곡면	90.54	4	1.24
광석면	78.94	4	1.08
은진면	67.78	4	0.93
노성면	52.99	4	0.73
상월면	46.71	4	0.64
채운면	33.83	4	0.46
성동면	33.57	4	0.46
벌곡면	31.62	4	0.43

■ 계룡시 중심지 계층구조

- 계룡시의 동·읍·면별 중심지 기능지수를 도출하여, 군집분석을 실행한 후 계층구조를 분석한 결과, 총 4개의 군집으로 계층을 나눌 수 있음
- 제1계층은 엄사면으로 중심성 비중이 전체의 59.33%에 달해 계룡시에서 가장 높은 중심지 기능을 나타냄
- 제2계층의 경우 시청소재지인 금암동으로서 21.39%를 나타내며, 계룡시에서 엄사면 다음으로 지역의 부차적인 중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제3계층은 신도안면으로서 15.68%를 차지하고 있
- 마지막으로 제4계층은 두마면으로서 3.6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동·면 지역에 비해 월등히 작음
- 계룡시의 경우 현재 4개 동·면 지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타 시군에 비해 시청소재지의 계층이 2계층이며, 1~3계층 간의 중심성비중 간격의 차이가 적음

〈표 3-3〉 계룡시의 중심지 계층구조

행정구역	중심지 가능지수	계층	중심성 비중
엄사면	3,737.66	1	59.33
금암동	1,347.29	2	21.39
신도안면	987.79	3	15.68
두마면	227.26	4	3.61

■ 금산군 중심지 계층구조

- 금산군의 읍·면별 중심지 기능지수를 도출하여, 군집분석을 실행한 후 계층 구조를 분석한 결과, 총 4개의 군집으로 계층을 나눌 수 있음
- 제1계층은 금산읍 금산읍으로 중심성 비중이 금산군 전체의 76.96%에 달해 금산군에서 절대적으로 높은 중심지 기능을 나타냄
- 제2계층의 경우 추부면으로서 12.69%를 나타내고 있어, 금산군에서 금산읍 다음으로 지역의 부차적인 중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하지만 1계층과 2~4계층 간의 차이가 월등히 높아, 군청 소재지인 금산읍과는 대조적으로 농촌중심지의 정주환경 기초서비스 기능으로 볼 수 있음
- 제3계층의 경우 금산군 전체에서 각각 1.61%~2.94%를 차지하고 있으며, 복수면, 진산면, 제원면 등의 높은 순으로 약한 중심성을 보임
- 제4계층의 경우 금산군 전체에서 각각 0.18%~1.36%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리면, 남일면, 군북면, 남이면, 금성면 등의 높은 순으로 나타나 가장 작은 범주의 중심성을 보임

〈표 3-4〉 금산군의 중심지 계층구조

행정구역	중심지 기능지수	계층	중심성 비중
금산읍	5,464.17	1	76.96
추부면	901.33	2	12.69
복수면	208.49	3	2.94
진산면	153.62	3	2.16
제원면	114.52	3	1.61
부리면	96.40	4	1.36
남일면	73.29	4	1.03
군북면	41.80	4	0.59
남이면	33.61	4	0.47
금성면	12.80	4	0.18

2) 상품구매 및 서비스시설 이용권

(1) 분석방법 및 이용자료

- 상품구매 및 서비스시설 이용권을 측정하기 위해 충청남도 읍·면·동별로 각 10부씩 총 1,800부의 설문조사를 시행함(2012년 11월 설문조사 기준)
- 설문은 생활필수품, 생활편의시설, 농업물품, 가전제품, 진료, 종합병원, 경제활동, 친지방문 및 친지모임, 각종 사회모임, 문화·여가·체육활동, 민원행정서비스 등 총 11개 품목에 대하여 구매 및 서비스 이용지역을 조사하였으며, 특징이 보이는 9개 품목에 대해 설명
- 이후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물품구매권의 O-D표를 작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상품구매 및 서비스시설 이용권의 O-D그림을 작성

(2) 분석결과³⁾⁴⁾⁵⁾

■ 생활필수품

- 생활필수품은 찬거리, 일상식료품, 치약 등 일상 소모품인 저차서비스로서 충남평균 95% 내외가 자기 시·군에서 서비스를 이용함
- 주변지역인 대도시로 이용하는 비율은 논산시가 충청남도 평균 2%에 비해 4%로 높아 대전광역시로의 상품구매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계룡시의 경우 98%가 자기지역에서 생활필수품을 구매하였고, 그중 3%가 대전광역시로 구매비율을 보임
- 금산군의 경우 96%가 자기지역에서 구매하였고, 4%가 대전광역시로 구매비율을 나타남

3) 제시된 그림의 범례 구간은 이용비율을 지역 내 인구수로 환산한 후, 표준편차의 구간에 의해 구분함

4) 설문항목 중 “친지방문 및 친지모임”은 분산적인 랜덤패턴, 민원행정서비스는 자기지역으로 특정한 패턴이 없어 설명에서 제외함

5) 분석결과 중 충남전체 평균의 합이 100%가 안 되는 품목들은 응답자와 관련사항이 없어 불응답함
예) 경제활동의 경우 가정주부나 무직자는 경제활동 항목에서 불응답

〈표 3-5〉 상품구매 및 서비스이용지역 비율(생활필수품)

Q01 생활필수품	해당사군			주변지역		
	자기 읍면	다른 읍면	사군청 소재지	읍면	사군청 소재지	대도시 (50만이상)
충청남도	73%	2%	21%	1%	2%	2%
논산시	64%	3%	29%	1%	-	4%
계룡시	95%	3%	-	-	-	3%
금산군	61%	10%	25%	-	-	4%

Q01_생활필수품
이용인구 규모

Q01_생활필수품
사군 내 이용률(%)

Q01-1_생활필수품(이용인구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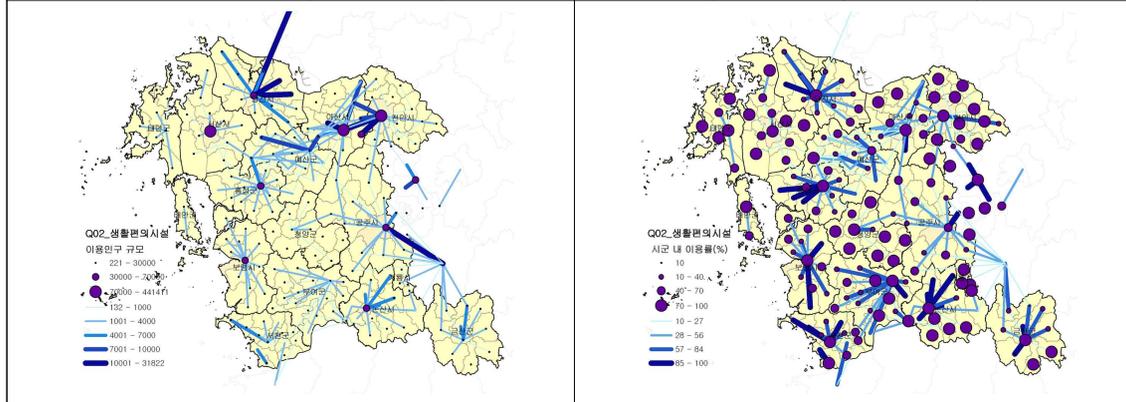
Q01-2_생활필수품(사군 내 이용률)

■ 생활편의시설

- 생활편의시설은 요식업소, 목욕탕, 이.미용실 등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편의 시설로서 중차서비스이며, 충남평균 자기지역 읍면이 47%, 자기지역 사군청 소재지가 40%이고, 주변지역은 8% 내외임
- 생활필수품에 비해 자기지역 읍면 비율보다 자기지역 사군청 소재지로 집중하는 경향이 높음
- 논산시의 경우 논산시 동부지역으로의 이용이 55%로서 충청남도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계룡시의 경우 자기지역 읍면에서 이용 비율이 93%에 달하며, 5%의 비율이 대전광역시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금산군은 금산읍에서 56%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13%가 대전광역시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3-6〉 상품구매 및 서비스이용지역 비율(생활편의시설)

Q02 생활편의시설	해당사군			주변지역		
	자기 읍면	다른 읍면	사군청 소재지	읍면	사군청 소재지	대도시 (50만이상)
충청남도	47%	5%	40%	1%	3%	4%
논산시	37%	4%	55%	3%	-	1%
계룡시	93%	3%	-	-	-	5%
금산군	22%	9%	56%	-	-	13%



Q02-1_생활편의시설(이용인구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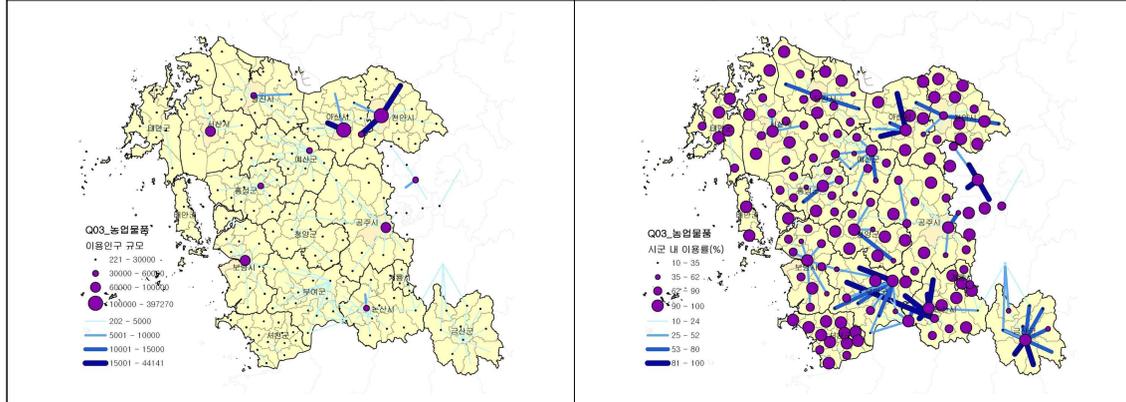
Q02-2_생활편의시설(사군 내 이용률)

■ 농업물품

- 농업물품은 농자재, 농약, 비료, 종묘 등 농업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반적인 물품으로서 저차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음
- 충남평균 85%가 자기지역에서 구매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자기지역 내 입지한 점포들이나 농협의 하나로 마트에서 주로 구매가 이루어짐
- 일부지역에서 자기지역의 사군청 소재지로도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남
- 논산시는 99%가 자기지역에서 농업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51%가 논산시 동부지역에서 구매를 하고 있음
- 계룡시의 경우 모든 응답자가 계룡시 내에서 농업물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 됨
- 금산군의 경우 90%가 자기지역 내에서 농업물품을 구매하였고, 10%가 대전광역시에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3-7〉 상품구매 및 서비스이용지역 비율(농업물품)

Q03 농업물품	해당사군			주변지역		
	자기 읍면	다른 읍면	사군청 소재지	읍면	사군청 소재지	대도시 (50만이상)
충청남도	62%	2%	21%	0%	1%	2%
논산시	42%	6%	51%	-	-	1%
계룡시	95%	5%	-	-	-	-
금산군	27%	9%	54%	-	-	10%



Q03-1_농업물품(이용인구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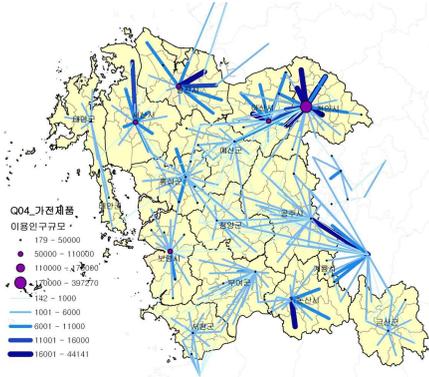
Q03-2_농업물품(사군 내 이용률)

■ 가전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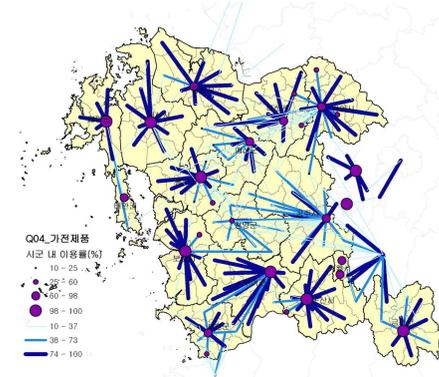
- 가전제품은 TV,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등을 구매하는 중차서비스로서 자기 읍·면보다는 자가지역 내 시·군청소재지로 집중하는 경향이 절대적임
- 충청남도 평균의 경우 자가지역에서의 구매 비율이 82%에 달하며, 이중 69%가 자가지역 시·군청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남
- 논산시의 경우 논산시 동부지역에서 80%의 구매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변 지역은 7%에 불과함
- 계룡시의 경우 자가지역 읍·면에서 40%의 비율을 보이나, 대전광역시로 58%의 가전제품 구매비율을 보이고 있어 대전광역시에서의 구매의존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 됨
- 금산군의 경우 금산읍에서 62%의 구매비율을 보이고, 대전광역시에서 22%의 구매비율을 보이고 있음

〈표 3-8〉 상품구매 및 서비스이용지역 비율(가전제품)

Q04 가전제품	해당사군			주변지역		
	자기 읍면	다른 읍면	사군청 소재지	읍면	사군청 소재지	대도시 (50만이상)
충청남도	12%	1%	69%	0%	9%	9%
논산시	11%	1%	80%	1%	3%	3%
계룡시	40%	3%	-	-	-	58%
금산군	11%	5%	62%	-	-	22%



Q04-1_가전제품(이용인구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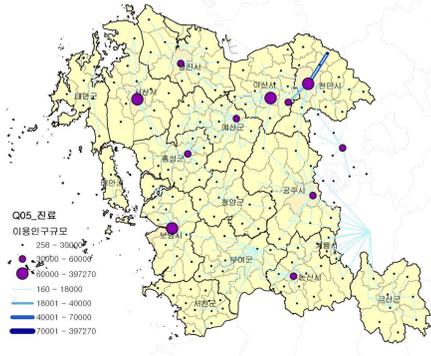
Q04-2_가전제품(사군 내 이용률)

■ 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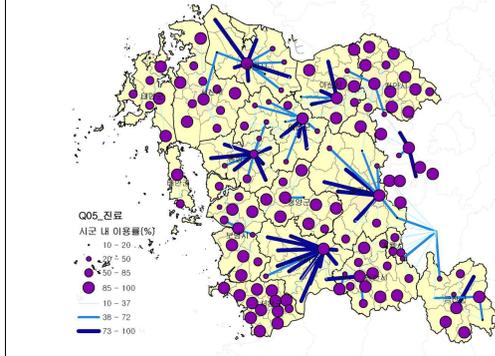
- 진료는 보건소, 보건지소, 일반 병·의원 등 1차 의료서비스를 말하며, 저차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음
- 충청남도 평균의 경우 96%가 자기지역에서 진료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자기 지역 읍·면이나 자기지역의 사군청 소재지로 집중함
- 논산시의 경우 95%가 자기지역에서 1차 진료서비스를 받고 있음
- 계룡시는 자기지역에서 75%의 비율을 보이나, 대전광역시에서 25%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충청남도 평균 주변 대도시 비율인 3%에 비해 매우 높음
- 금산군은 93%가 자기지역에서 1차 진료를 받으며, 이중 48%가 금산읍에서 진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그 밖에 7%가 대전광역시에서 진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3-9〉 상품구매 및 서비스이용지역 비율(진료)

Q05 진료	해당사군			주변지역		
	자기 읍면	다른 읍면	사군청 소재지	읍면	사군청 소재지	대도시 (50만이상)
충청남도	60%	2%	34%	0%	2%	3%
논산시	83%	3%	12%	1%	-	1%
계룡시	70%	5%	-	-	-	25%
금산군	39%	6%	48%	-	-	7%



Q05-1_진료(이용인구 규모)



Q05-2_진료(사군 내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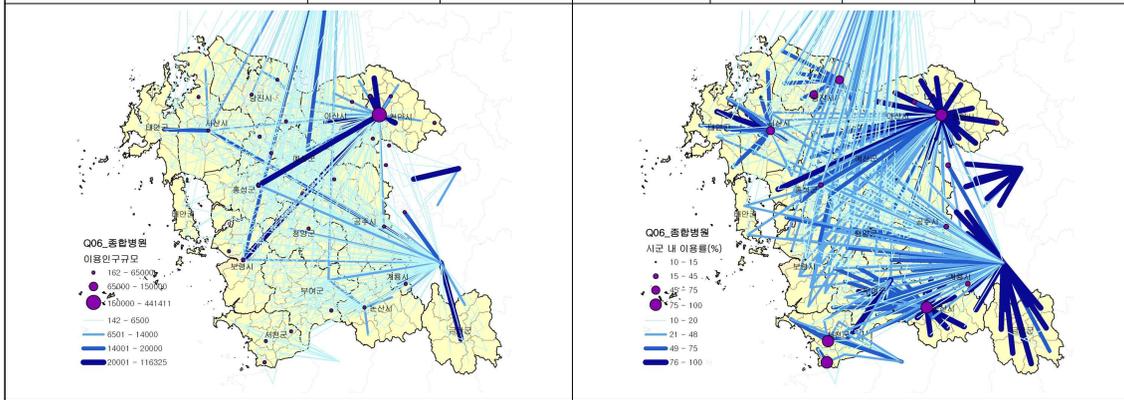
■ 종합병원

- 종합병원은 3차 진료서비스로서 고차서비스로 분류함
- 충남평균으로 자기지역에서 이용하는 비율이 25%로 적었고, 주변지역으로의 이용비율은 70%로 절대적으로 높았으며, 주변 대도시로의 이용비율이 56%로 높음
- 대도시인 천안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종합병원이 입지되어 있는 대도시로 집중하는 경향을 보임
- 하지만 논산시의 경우 자기지역 이용비율이 79%로 나타나고 있어, 충청남도 자기지역 시군청 소재지 이용 비율이 21%에 비해 월등히 높음
- 그 밖에 대전광역시로 21%의 이용비율을 보임
- 계룡시의 경우 종합병원 이용비율의 85%가 대전광역시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 됨

- 금산군 역시 종합병원 이용비율의 95%가 대전광역시에서 이용하여 절대적인 이용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0〉 상품구매 및 서비스이용지역 비율(종합병원)

Q06 종합병원	해당사군			주변지역		
	자기 읍면	다른 읍면	사군청 소재지	읍면	사군청 소재지	대도시 (50만이상)
충청남도	4%	0%	21%	-	14%	56%
논산시	6%	1%	72%	-	-	21%
계룡시	8%	-	8%	-	-	85%
금산군	-	2%	3%	-	-	95%



Q06-1_종합병원(이용인구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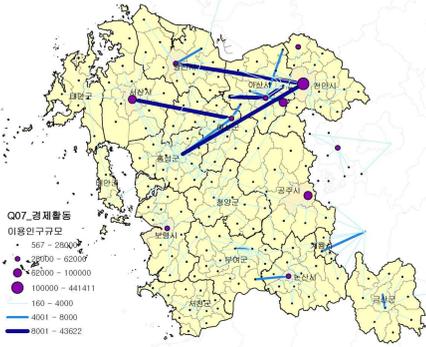
Q06-2_종합병원(사군 내 이용률)

■ 경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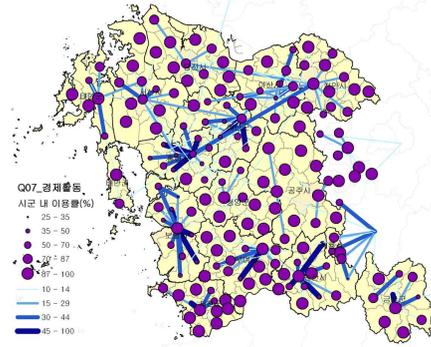
- 경제활동은 직장, 일터 등을 말하며, 고차서비스로서 충남평균은 자기지역 시군에서 86% 내외로 경제활동을 하였으며, 주변지역으로는 5%로 내외로 적음
- 논산시는 자기지역에서 83%가 경제활동을 하였고, 주변지역에서 5%의 경제활동 비율을 나타냄
- 계룡시의 경우 자기지역에서 65%의 경제활동을 하였고, 대전광역시에서 15%의 경제활동 비율을 보이고 있어, 충청남도 평균의 2%에 비해 월등히 높음
- 금산군의 경우 98%가 자기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1〉 상품구매 및 서비스이용지역 비율(경제활동)

Q07 경제활동	해당사군			주변지역		
	자기 읍면	다른 읍면	사군청 소재지	읍면	사군청 소재지	대도시 (50만이상)
충청남도	69%	2%	15%	1%	2%	2%
논산시	56%	6%	21%	3%	1%	1%
계룡시	65%	-	-	-	-	15%
금산군	74%	4%	20%	-	1%	1%



Q07-1_경제활동(이용인구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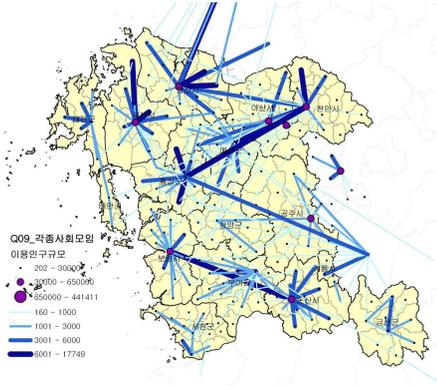
Q07-2_경제활동(사군 내 이용률)

■ 각종사회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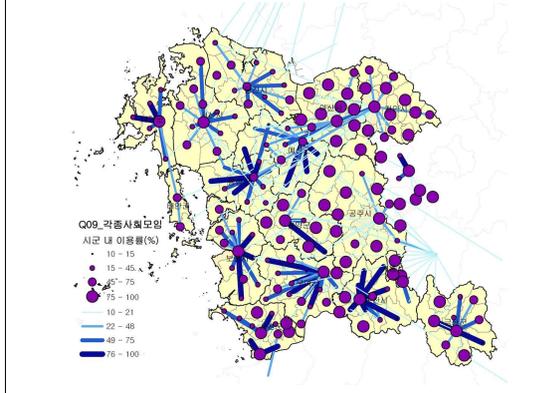
- 각종 사회모임은 동창회, 계, 위원회, 각종 단체의 회의 등을 말하며, 중차서 비스로서 충남평균은 자기지역 읍·면 비율이 50%, 자기지역 시·군청 비율이 39%로 나타남
- 일부 시·군의 경우 자기지역 읍면 및 시·군청 소재지나 주변 시·군청 소재지나 대도시로 집중하는 경향을 동시에 보임
- 논산시의 경우 93%가 자기지역, 6%가 계룡시에서 각종사회모임을 갖은 것으로 나타남
- 계룡시의 경우 94%가 자기지역에서, 8%가 대전광역시에서 각종사회모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금산군은 98%가 자기지역에서 각종사회모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2〉 상품구매 및 서비스이용지역 비율(각종사회모임)

Q09 각종사회모임	해당사군			주변지역		
	자기 읍면	다른 읍면	사군청 소재지	읍면	사군청 소재지	대도시 (50만이상)
충청남도	50%	3%	39%	1%	4%	4%
논산시	30%	9%	54%	5%	1%	1%
계룡시	88%	3%	3%	-	-	8%
금산군	62%	10%	26%	-	-	2%



Q09-1_각종사회모임(이용인구 규모)



Q09-2_각종사회모임(사군 내 이용률)

■ 문화여가체육활동

- 문화·여가·체육활동은 문화행사, 취미강좌, 헬스 등을 말하며, 고차서비스로서 충남평균은 자기지역 읍·면의 경우 59%, 자기지역 시·군청소재지의 경우 31%, 주변지역이 6%로 나타남
- 각종 사회모임과 마찬가지로 일부도시에서 자기 읍·면 이용과 시·군청 소재지나 대도시로 집중하는 경향을 동시에 보임
- 논산시의 경우 자기지역 읍·면에서 39%, 논산시 동부에서 47%의 비율을 보이며, 계룡시에서도 5%의 비율을 나타냄
- 계룡시의 경우 92%가 자기지역에서 이용하고 있고, 8%가 대전광역시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금산군은 99%가 자기지역에서 문화·여가·체육활동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3〉 상품구매 및 서비스이용지역 비율(문화여가·체육활동)

Q10	해당사군			주변지역		
	자기 읍면	다른 읍면	사군청 소재지	읍면	사군청 소재지	대도시 (50만이상)
충청남도	59%	3%	31%	0%	3%	3%
논산시	39%	6%	47%	5%	1%	1%
계룡시	88%	3%	3%	-	-	8%
금산군	62%	10%	27%	-	-	1%

Q10_문화·여가·체육활동(이용인구 규모)

Q10-2_문화·여가·체육활동(사군 내 이용률)

3) 통행연계구조 분석

(1) 분석의 방법 및 이용자료

- 지역 간 연계성과 중심성은 지역 간의 관계, 지역구조 등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지역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이용됨
- 따라서 전국 230개 시·군·구의 통근통행 O-D표를 이용하여 동일권역으로 묶이는 시·군·구를 계층적으로 선정함
 - 일반적으로 O-D행렬에서 $x_{ij} \neq x_{ji}$ 이기 때문에 도착과 출발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서 i 지역과 j 지역 간의 통근통행량은 $\frac{(x_{ij} + x_{ji})}{2}$ 로 계산

- 지역의 인구가 크면 통행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역의 크기를 고려하기 위하여 야간인구 대비 통근통행량을 계산

$$\frac{(x_{ij} + x_{ji})}{(P_i^N + p_j^N)}$$

- 평균연결법(Average Linkage Method)을 사용하고, 통근통행 O-D행렬을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수행

〈표 3-14〉 통근통행 O-D행렬

O \ D		지 역						출발 합계	재택자	야간 인구
		D_1	D_2	...	D_j	...	D_n			
지 역	O_1	x_{11}	x_{12}	...	x_{1j}	...	x_{1n}	X_1^O	h_1	P_1^N
	O_2	x_{21}	x_{22}	...	x_{2j}	...	x_{2n}	X_2^O	h_2	P_2^N
	⋮	⋮	⋮	⋮	⋮	⋮	⋮	⋮	⋮	⋮
	O_i	x_{i1}	x_{i2}	⋮	x_{ij}	⋮	x_{in}	X_i^O	h_i	P_i^N
	⋮	⋮	⋮	⋮	⋮	⋮	⋮	⋮	⋮	⋮
	O_n	x_{n1}	x_{n2}	...	x_{nj}	...	x_{nn}	X_n^O	h_n	P_n^N
도착합계	X^D	X_1^D	X_2^D	...	X_j^D	...	X_n^D			
재택자	H	h_1	h_2	...	h_j	...	h_n			
주간인구	P^D	P_1^D	P_2^D		P_j^D		P_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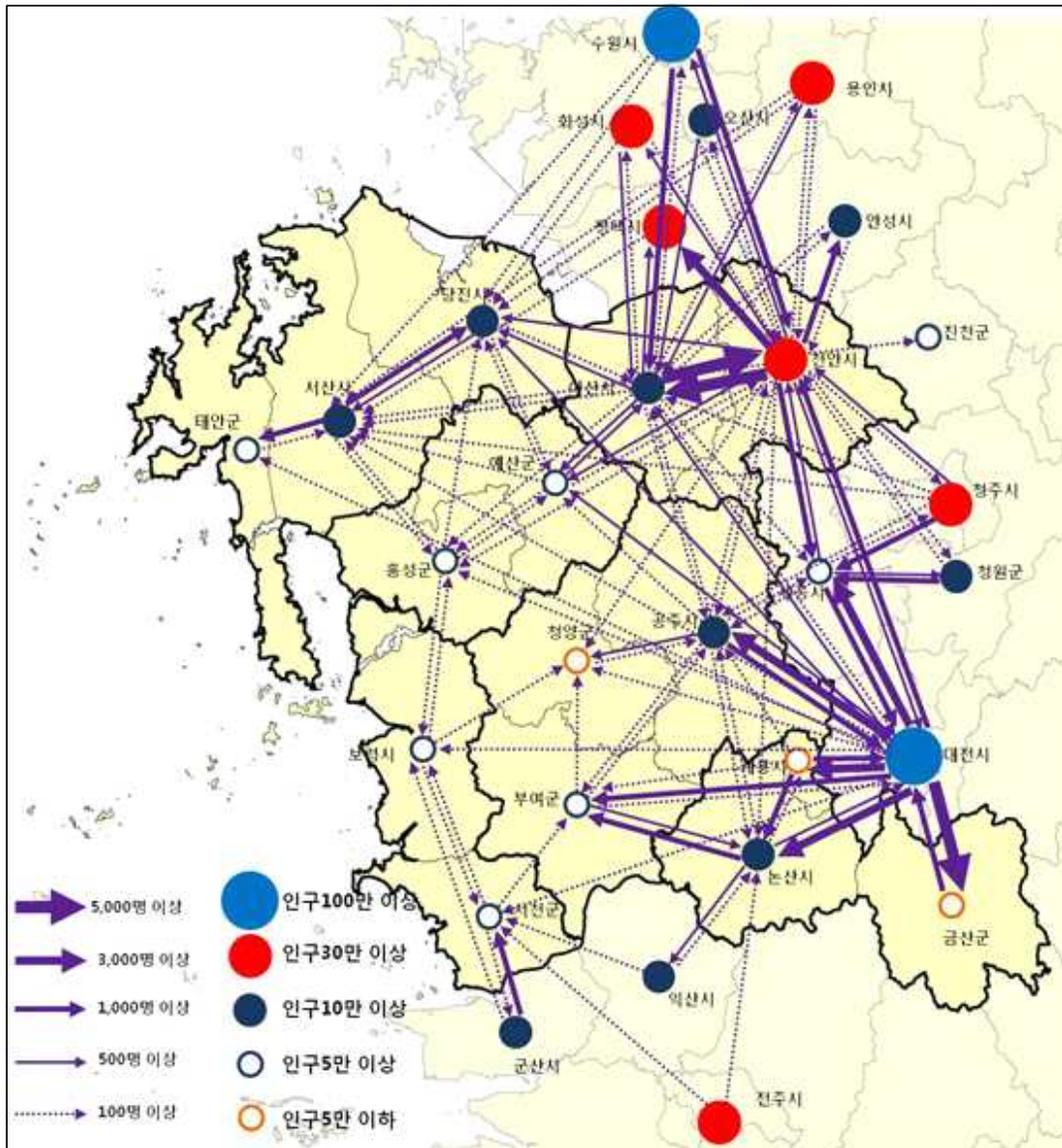
(2) 논산-계룡-금산 생활권의 통근연계구조

- 논산-계룡-금산 생활권은 논산시를 중심으로 주변 중소도시와 통근연계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이들 지역 모두 대전광역시와의 통근연계가 강하며, 대전광역시를 출발지로 하는 통근 유입량이 유출량보다 훨씬 높음
 - 논산시 유출 통근통행량이 높은 지역은 부여군으로 1,099대, 대전광역시 949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입 통근통행량이 높은 지역은 대전광역시로 4,871대, 계룡시로 1,495대인 것으로 나타남
 - 계룡시 유출 통근통행량이 높은 지역은 대전광역시가 2,930대, 논산시가 1,495

대 순이고, 유입 통근통행량이 높은 지역은 대전광역시가 3,705대로 나타남

- 금산군의 유출 통근통행량이 높은 지역은 대전광역시로 1,108대이고, 유입 통근통행량이 높은 지역은 8,343대로 매우 높음

- 금산군의 경우 대전광역시와의 통근통행량이 많은 반면에, 논산시 및 계룡시와의 통근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는 금산군과 논산시 및 계룡시 간 교통망의 발달이 미흡하고, 각 지역 상호 간 통근통행을 유발할 만큼의 경제협력 기반을 미흡하기 때문으로 분석됨



[그림 3-1]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의 총 통행량 현황

4) 산업연계구조 분석

(1) 분석의 방법 및 이용자료

- 2005년 기준 16개 시·도단위 지역산업연관표⁶⁾에 대해서 생산물혼합기법(Product Mix Method)⁷⁾을 이용하여 시·군 단위로 세분화함
- 시범적인 분석결과를 통해 시·군단위에서 지역 간, 산업 간 재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함
- 충남 시·군에 대해 특정산업을 중심으로 중간재화의 흐름을 제시함
- 분석지역은 충남 16개 지역(과거 연기군 포함)을 대상으로 수행함

(2) 분석결과

■ 충청남도 중간재화 분석결과

- 16개 시·군 모두 자기 시·군의 중간재 소비 비율이 가장 높음
- 전산업의 경우 충남 북부권 지역의 시·군이 서로 상호관계에서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음
- 또한 공주, 아산, 논산, 계룡, 금산, 세종 등은 천안의 영향이 크게 나타남
- 아울러 보령, 당진, 홍성, 예산, 태안 등은 서산시로부터 영향이 크게 나타남
- 정밀기계 산업, 전기전자 산업, 수송산업은 충남의 대부분 시·군이 천안시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보이며, 천안시와 아산시가 중간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산업역량을 보임
- 1차 금속 산업은 천안, 아산, 당진지역이 타 지역으로 중간재화의 전달 비중이 높으며, 당진의 경우 현대제철소의 영향이 큼
- 비금속광물 산업은 충남 동남부 지역의 경우 천안시가 타 지역으로의 중간

6) 지역산업연관표는 직접조사가 아닌 간접적인 방법으로 작성됨에 따라 실제 경제상황과 차이가 발생하며, 세분화된 지역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제 지역의 경제상황과 비교, 검토될 필요가 있다.

7) 생산물혼합기법은 지역의 세부 산업구성을 이용하여 상위 산업의 기술계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지역이 세분화되어도 산업간 기술구조는 다르지 않을 것임을 가정하고 있다.

재화 전달 비중이 높은 반면, 서북부 지역은 보령시와 서산시가 타 지역으로 중간재화의 조달 비율이 상당히 높음

- 농림수산품은 서산시가 충남 서북부 지역에 있는 시·군들에게 조달비율이 높고, 논산시가 공주시·계룡시·금산군으로 중간재 조달 비율이 높으며, 부여군 역시 서천군과 청양군으로 조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음식료품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뚜렷한 특징을 보이지 않고, 분산적으로 조달비율의 패턴을 보이고 있음

■ 논산-계룡-금산 생활권 분석 결과

- 대부분 시군의 여러 산업에서 천안시와 아산시로의 중간재화 조달 비율이 상위권에 위치함
- 논산-계룡-금산 생활권은 특히 계룡에서 논산, 금산에서 논산으로 향하는 중간재화 조달비율이 밀접한 영향관계에 있음
 - 계룡시의 경우 전산업, 비금속광물, 농림수산품, 음식료품에서 논산시로 중간재화 조달 비율이 높았으며, 금산군으로 음식료품의 조달비율이 높음
 - 금산군은 전산업, 1차금속, 수송, 비금속광물, 농림수산품, 음식료품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논산시로 중간재화 조달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3-15〉 충남 시군의 지역별 중간재화 조달 비율 상위 1~3위

지역	지역별 순위(%)							
	전산업	정밀기계	1차 금속	전기전자	수송	비금속광물	농림수산품	음식료품
논산	천안(5.1%) 공주(3.4%) 부여(3.2%)	천안(13.2%) 아산(6.5%) 세종(3.2%)	천안(11.1%) 당진(6.9%) 부여(5.7%)	천안(21.7%) 아산(10.5%) 세종(4.4%)	천안(13.6%) 아산(9.0%) 세종(3.0%)	공주(5.3%) 천안(4.8%) 서천(3.9%)	공주(6.5%) 부여(6.3%) 서천(5.5%)	부여(7.1%) 서천(5.9%) 공주(5.6%)
계룡	천안(3.7%) 논산(3.4%) 아산(2.3%)	천안(11.4%) 아산(6.5%) 세종(3.9%)	-	천안(16.9%) 아산(8.5%) 세종(5.2%)	-	논산(5.1%) 세종(4.8%) 천안(3.6%)	논산(9.3%) 천안(7.9%) 서산(4.6%)	논산(14.0%) 부여(5.6%) 금산(5.0%)
금산	천안(8.1%) 논산(4.9%) 아산(3.3%)	천안(12.8%) 아산(5.0%) 세종(4.1%)	천안(9.8%) 논산(9.7%) 당진(5.1%)	천안(20.8%) 아산(8.0%) 세종(6.2%)	천안(13.3%) 아산(7.0%) 논산(5.3%)	논산(6.3%) 세종(4.9%) 천안(4.5%)	논산(7.7%) 천안(5.3%) 세종(2.6%)	논산(13.8%) 부여(4.2%) 서천(3.7%)

주 : 금액이 아닌 조달 비율을 표로 나타내었기 때문에, 중간재화의 조달 도착기준으로 각 도착 시군별 비교는 무의미 하며, 타 지역에서 개별시군으로의 도착 조달 비중에 대한 개별 셀에서만 의미가 있음

1) 여건변화 및 전망

- 세계화로 인한 지역사회의 구조적 변화
 -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사회문화적 세계화·광역화 심화
 - 지역 단위 경제 활동에서, 지자체→광역단위→국가단위 경제로의 중요성 변화
-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구조 변화
 - 지역사회의 인구고령화 현상 심화로 인한 지역 내 인적구조 개편
 - 출산률 저하 및 인구유출, 고령화 등 지역사회의 인구감소 현상 우려
- 광역도시 중심의 지역 간 연계 구조 강화
 - 대전광역시 등 인근 광역도시에 대한 사회문화, 산업·경제적 의존 강화
 - 광역도시 중심의 지역 간 연계구조 형성으로 기존의 행정적 연계구조 약화
- 지역 간 불균형 심화
 -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역량 약화로 인한 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 심화
 - 광역도시에 대한 인구 유출 증가로 인한 지역사회 공동화 현상 우려
- 삶의 질적 향상에 대한 가치관 변화
 - 환경문제 대두로 인해 친환경 지역사회 구성에 대한 관심 증대
 - 산업화 등 반대급부로 사회문화적 생활 수준의 질적 제고에 대한 관심 증대

2) 지역발전 여건분석 종합

(1) 강점(Strength)

- 풍부한 역사·문화적 가치와 자연환경 자산 보유
 - 백제문화, 기호유교문화 등 역사·문화적 자산 및 계룡산, 대둔산, 금강, 탐정호 등 다양한 자연환경 자원 보유
- 충청남도 농산업 거점으로서의 역량 보유
 - 논산시와 금산군을 중심으로, 딸기, 멜론, 인삼, 깻잎 등 국가적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지닌 농특산 자원과 조성 기반 보유
- 도시근교형 지역으로서 풍부한 개발가능성 보유
 - 세종시와 대전시 등과 연계된 도시근교형 배후거점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풍부한 개발 가용토지 보유
- 환경친화적 지역개발을 위한 여건 보유
 - 양호한 교통접근성 및 쾌적한 환경을 활용한 전원주거지 개발 입지 풍부

(2) 약점(Weakness)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 미약
 - 산업(농공)단지 및 제조업 등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거점 조성 미흡
- 고령화 및 인구감소 현상 심화
 - 고령화사회 대응 정주기반 미흡, 젊은 인구감소 등 경제활동 인구 비율 저하
- 인근 광역도시와의 도시연담화 현상 심화
 - 대전에 대한 상품구매 및 서비스 의존 심화로 지역발전 자생력 확보 어려움

- 문화·관광자원 기반 및 특화 요소 개발 미흡
 - 관광객 유인을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보 및 특화된 관광자원 발굴·활용 정체
- 도시 정주여건 개선 미흡
 - 주민의 생활수준 제고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및 의료·복지시설 등 확충 미흡

(3) 기회(opportunity)

- 정부의 지역 간 연계협력 장려 정책
 - 지역행복생활권, 광역관광개발 등 지역 간 상생발전 정책 기조 확산
-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따른 접근성 강화
 - 고속도로, KTX 개통, 광역철도개통으로 수도권 및 경상도 등과 접근성 강화
- 기호유교문화권 등 역사·문화자원 활용에 대한 관심 증대
 - 백제문화권과 더불어, 기호유교문화권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사업화로 인한 역사문화관광사업 등의 활성화 가능성 증대
- 교통의 요충지로 산업체 등 산업기반시설 유치에 유리
 - 서해안 신산업지대 등과 연계된 산업기반시설 및 물류거점시설 유치 및 육성에 유리한 입지적 조건을 갖춤

(4) 위협(Threat)

- 세종특별자치시 등 광역도시 빨대효과로 인한 주변지역 공동화 우려
 - 교통여건 증가, 보육 및 보건·의료 등 차이로 인한 인구의 광역도시 편중 현상 심화로 지역 내 인적·물적 공동화 현상 발생 가능성 상존
-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산업체 유치 기반 위축

- 지역에 대한 대기업 이전 감소, 지역 기업의 수도권 역외유출 가능성 상존

◎ 글로벌 경제로 인한 지역 기반산업 위축 우려

- 한미·한중 FTA 등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한 지역 농산업 등 위축 우려

◎ 지역 간 유사개발로 인한 지역 테마의 차별성 저하 우려

- 친환경농산물, 역사문화관광거점 등 지역 간 유사한 형태의 발전전략 추진으로 인한, 지역 정체성 및 테마의 차별성 부각 어려움

<표 4-1> 충청남도 남동권 발전여건 분석종합(SWOT 분석)

		강점	약점
		외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부한 역사문화적 가치와 자연환경 자산 보유 ◎ 충청남도 농산업 거점으로서의 역량 보유 ◎ 도시근교형 지역으로서 풍부한 개발가능성 보유 ◎ 환경친화적 지역개발을 위한 여건 보유
기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지역 간 연계협력 장려 정책 ◎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따른 접근성 강화 ◎ 기호유교문화권 등 역사문화자원 활용 관심 증대 ◎ 교통요충지로 산업체 등 산업기반시설 유치 유리 	<p>[외부기회+내부강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자원 활용 테마화명소화 전략 추진 ◎ 환경친화적 도시근교형 전원주거지 개발 	<p>[외부기회+내부약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기반시설 및 물류거점시설 육성 ◎ 도농통합형 생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위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도시 빨대효과로 인한 주변지역 공동화 우려 ◎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산업체 유치 기반 위축 ◎ 글로벌 경제로 인한 지역 기반산업 위축 우려 ◎ 지역 간 유사개발로 지역 테마 차별성 저하 우려 	<p>[외부위협+내부강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동권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광역벨트 구축 ◎ 향토자원 연계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 육성 	<p>[외부위협+내부약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문화, 복지 등 정주기능 강화 및 지역재생 전략 추진 ◎ 경제공동체 구축으로 광역도시와 지역 간 상생발전 도모

이상. 끝.